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 제1권 상

2017.5.10 ~ 2017.10.31



제19대 대통령 취임식(2017. 5. 10)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2017. 5. 10)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2017. 6. 27)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2017. 5. 25)



국정과제 보고대회(2017.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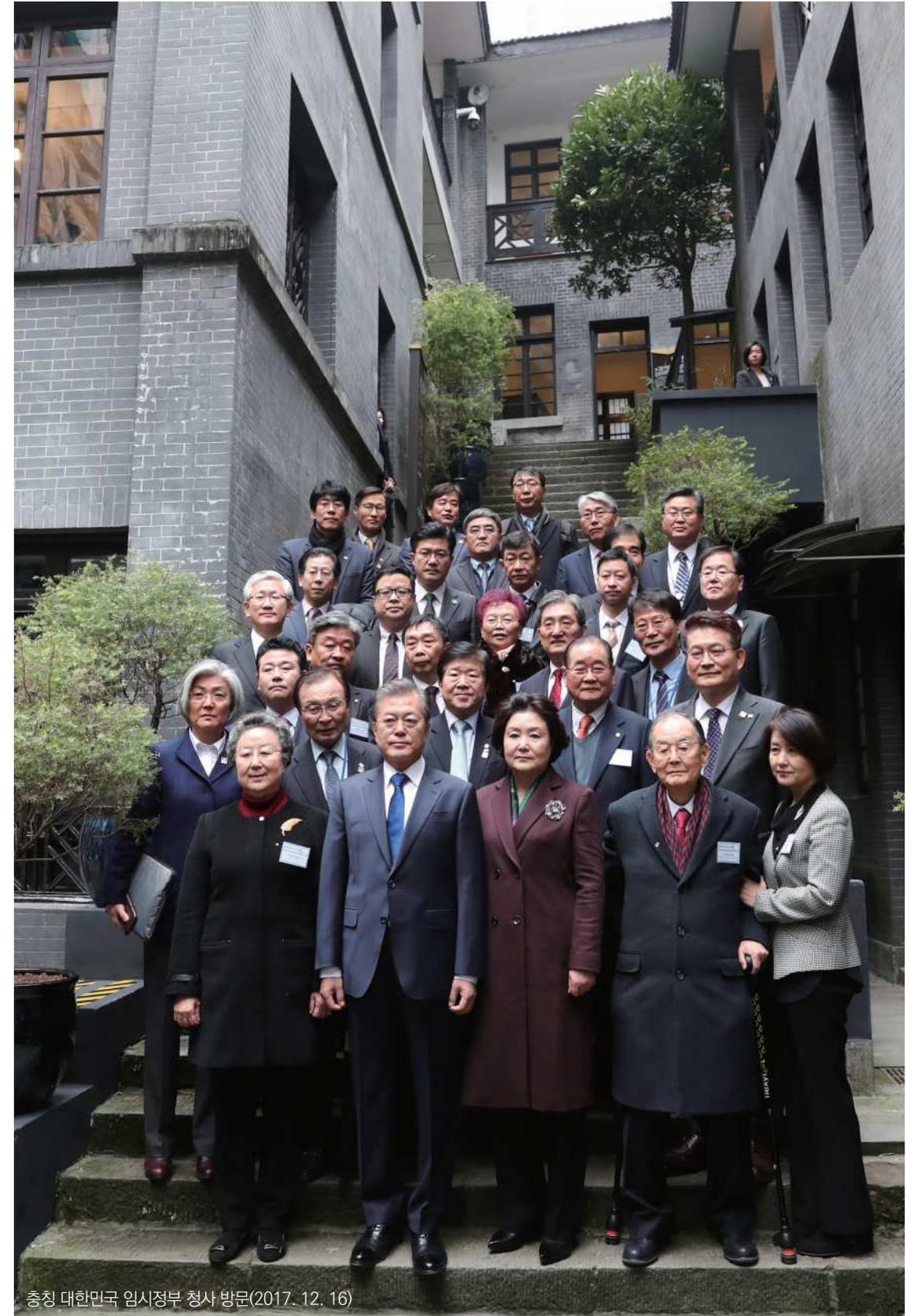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2018. 2. 1)



정당 대표 초청 대화(2018. 3. 7)

| 따뜻한 보훈



충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2017. 12. 16)



제62회 현충일 추념식(2017. 6. 6)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2017. 8. 15)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2017. 6. 15)



제99주년 3·1절 기념식(2018. 3. 1)



세계시민상 수상(2017. 9. 19)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2017. 5. 18)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2017. 6. 10)



제58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2018. 2. 28)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2017. 10. 18)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2018. 4. 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2017. 11. 1)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2017. 7. 27)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2017. 6. 12)



노동계 초청 대화(2017. 10. 24)



쇄빙LNG선박 건조 현장 방문(2018. 1. 3)



더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2017. 6. 19)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2018. 1. 16)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2017. 10. 20)



세월호 희생자 가족 초청 만남(2017. 8. 16)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2017. 11. 3)



밀양 화재 현장 방문(2018. 1. 27)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장 방문(2017. 6.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현장 방문(2017. 8. 9)



독일 코르버재단 초청 연설(2017. 7. 6)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2017. 6. 30)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 기조연설(2017. 9. 7)



G20 정상회의(2017. 7. 8)



유엔총회 기조연설(2017. 9. 21)



한미연합사령부 순시(2017. 6. 13)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2017. 9. 28)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식 및 임관식(2018. 3. 6)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2018. 2. 9)



평창동계패럴림픽 장애인아이스하키팀 격려(2018. 3. 17)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격려(2018. 2. 10)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 4. 2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 4. 2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기념식수(2018. 4. 2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도보다리 산책(2018. 4. 2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도보다리 회담(2018. 4. 2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환송(2018. 4. 27)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상

2017.5.10 ~ 2017.10.31



## 발간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행했던 각종 연설과 주요 회의 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한 메시지도 수록했습니다. 모두 286개로 역대 대통령 연설문집 중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모두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각 페이지 오른쪽 위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넣었습니다. 전자책도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집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통령의 말과 글을 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년 문재인정부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남은 4년 동안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소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례**

**2017년 5월**

2017. 5. 10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	49
2017. 5. 12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 .....	54
2017. 5. 15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현장 방문 .....	59
2017. 5. 17	국방부 순시 .....	62
2017. 5. 17	합동참모본부 순시 .....	65
2017. 5. 18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66
2017. 5. 23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	72
2017. 5. 31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	75

**2017년 6월**

2017. 6. 2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장 방문 .....	82
2017. 6. 2	치매국가책임제 SNS 메시지 .....	84
2017. 6. 2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당선 축전 .....	86
2017. 6. 6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	87
2017. 6. 7	현장 소방대원들과의 대화 .....	93
2017. 6. 7	용산소방서 방문 후 SNS 메시지 .....	98
2017. 6. 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100
2017. 6. 10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	102

2017. 6. 12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	107
2017. 6. 13	한미연합사령부 순시 .....	117
2017. 6. 14	제1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	120
2017. 6. 14	제19회 미주한인체전 축전 .....	123
2017. 6. 15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	124
2017. 6. 1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최식 .....	130
2017. 6. 19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	137
2017. 6. 21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	143
2017. 6. 23	6·25 한국전쟁 제67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	148
2017. 6. 24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	152
2017. 6. 28	(미국 방문)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	156
2017. 6. 28	(미국 방문) 한미 비즈니스 서밋 .....	160
2017. 6. 28	2017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영상 축사 .....	166
2017. 6. 29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 영상 축사 .....	168
2017. 6. 29	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 영상 축사 .....	170
2017. 6. 30	(미국 방문)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172
2017. 6. 30	(미국 방문) CSIS 전문가 초청 만찬 .....	175

## 2017년 7월

2017. 7. 1	(미국 방문) 워싱턴 동포 간담회	184
2017. 7. 2	방미 귀국 인사	190
2017. 7. 3	제50회 산업안전보건 날 기념식 영상 축사	192
2017. 7. 5	(독일 방문) 독일 의료 지원단 접견	194
2017. 7. 5	(독일 방문) 독일 동포 간담회	196
2017. 7. 5	(독일 방문) 한독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0
2017. 7. 6	(독일 방문) 퓌르버재단 초청 연설	203
2017. 7. 7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기조연설	214
2017. 7. 7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217
2017. 7. 7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영상 축사	220
2017. 7. 8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4세션	222
2017. 7. 12	제6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 축사	224
2017. 7. 19	국정과제 보고대회	226
2017. 7. 23	일본군 위안부 고(故) 김군자 할머니 추모 SNS 메시지	230
2017. 7. 27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	231
2017. 7. 28	제1회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236

## 2017년 8월

2017. 8. 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240
2017. 8. 9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	243

2017. 8. 10	건강보험정책 발표 SNS 메시지	248
2017. 8. 10	제3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서면 축사	250
2017. 8. 14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	252
2017. 8. 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257
2017. 8. 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간담회	266
2017. 8. 17	취임 100일 기자회견	268
2017. 8. 17	장준하 선생 서거 42주기 추모사	272
2017. 8. 18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274
2017. 8. 20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278
2017. 8. 20	이순진 합참의장 이임식 SNS 메시지	280
2017. 8. 30	2017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영상 축사	282
2017. 8. 31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개최식	284

## 2017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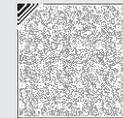
2017. 9. 1	제54회 방송의 날 서면 축사	290
2017. 9. 3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93
2017. 9. 6	(러시아 방문) 한·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95
2017. 9. 6	제14회 병역 명문가 시상식 서면 축사	299
2017. 9. 6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면 축사	301
2017. 9. 7	(러시아 방문) 한·러 우호 증진을 위한 초청 오찬	303
2017. 9. 7	(러시아 방문)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 전체회의	308
2017. 9. 8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 관련 대국민 SNS 메시지	316

2017. 9. 13	제64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319
2017. 9. 15	서해안 유류 오염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323
2017. 9. 17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돌 SNS 메시지	328
2017. 9. 18	(미국 방문) 뉴욕 동포 간담회	330
2017. 9. 18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335
2017. 9. 18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의 영상 축사	337
2017. 9. 19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339
2017. 9. 20	(미국 방문)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344
2017. 9. 20	(미국 방문)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351
2017. 9. 20	제9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 축전	357
2017. 9. 21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358
2017. 9. 25	ITU 텔레콤 월드 2017 영상 축사	366
2017. 9. 26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368
2017. 9. 26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370
2017. 9. 26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영상 인사	375
2017. 9. 27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	377
2017. 9. 27	제44회 관광의 날 영상 축사	381
2017. 9. 28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383
2017. 9. 29	전사·순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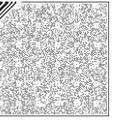
2017. 10. 4	2020 세계국제물류협회(FIATA) 세계총회 유치 지원 영상 축사	393
2017. 10. 9	한글날 SNS 메시지	395
2017. 10. 11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397
2017. 10. 12	제44회 LA 한인축제 서면 축사	401
2017. 10. 1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SNS 메시지	403
2017. 10. 15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405
2017. 10. 17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408
2017. 10. 18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413
2017. 10. 20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418
2017. 10. 20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423
2017. 10. 22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식	427
2017. 10. 22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마무리 SNS 메시지	431
2017. 10. 26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434
2017. 10. 28	촛불집회 1주년 SNS 메시지	437
2017. 10. 31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439
부록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에 따른 찾아보기		443

## 2017년 10월

2017. 10. 3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위로전	392
-------------	---------------------	-----



2017. 5



##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2017. 5. 10



제19대 대통령 취임식(2017. 5. 10)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술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한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히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



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했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

민 여러분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北京)과 도쿄(東京)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適材適所)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三顧草廬)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시대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렀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시작으로 이런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

2017. 5. 1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 상당수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정도가 비정규직이고, 여기에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줄지 않고 오히려 100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고,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하고,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속에는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있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2017. 5. 12)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원칙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만은 직원들이 출산이라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일시적 결원이 있다든지 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장관님들, 국무조정실장님이 계신데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서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어떻게 해소할지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고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제는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면 오히려 경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말 아주 자랑스럽죠. 개청된 이후에 무려 12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약 1조 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부채 비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경영 최우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체 근무 인원 중 84%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된 가운데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인천국제공항 경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장님께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과 인천국제공항 확장을 통해 2020년까지 3만 명, 2022년까지 5만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우수 공항 평가를 받아 온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께 치하 말씀드리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

환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 주셔야 다른 공공부문, 민간 기업들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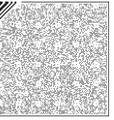
실제로 서울시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작년에는 국회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경험에 의하면 용역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절감되고, 그 절감된 비용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동자 처우도 좋아지면서 생산성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시 한번 그 실증적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은 정규직 전환을 늘리지 못하게 묶어 뒀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경영 평가 지침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늘리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만 명 계획과 앞으로 3만 명, 5만 명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들어보니 제가 임기 중에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만들겠다는 약속을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영 방침을 결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높아진 소득이 소비로 반영이 되어 내수가 살고, 내수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또다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소득 향상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경제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외부 행사인데, 제가 여러 번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



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경영진, 비정규직 노동자 및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현장 방문

2017. 5. 15

미세먼지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게 해서 공기를 더 맑게 만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같은 곳의 미세먼지 농도나 상태를 그때그때 측정해서 제대로 정보를 알려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넘으면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해서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외보다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대책이겠죠.

저는 미세먼지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초·중·고등학교가 1만 1,000개가 넘거든요. 학교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대에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다 설치하려면 한 6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국가 대기 측정기가 있어요. 현재 광역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측정기 하나에 스무 학교 정도씩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배로 늘려서 열 학교 정도를 권역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그날그날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 정보를 어린이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



부모님들에게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수업을 하지 않고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는 겁니다. 그 농도가 더 심해지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미세먼지가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많고,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도 있고, 간이 체육관조차도 아예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체육관조차 없는 학교는 간이 체육관부터 만들고, 간이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그것을 실내 체육관으로 전환하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바깥에 비가 오는 날에도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학교 교실마다, 실내 체육관마다 공기 정화 장치를 달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건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은 앞으로 정부 구성이 다 되면 종합적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데, 우선 대통령 지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지시했어요.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화력발전소,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는 59기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30~40년 이상 오래된 발전소입니다. 당시 발전소가 만들어질 때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제 임기 중에 전부 앞당

겨서 폐쇄하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3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는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임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려고 해요. 올해는 벌써 5월이 반쯤 갔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하면 되죠. 올해는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까지 해마다 정례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임기 내에 전부 폐쇄해 친환경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소들이 이미 전력 설비 예비율을 20% 이상 확보하고 있어 전력 공급은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비하면 전력 수요가 70~80%로 적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분의 일자리가 혹시 걱정될 수 있는데, 가동이 중단된 동안은 설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기도 하고 정비하기도 하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하면 미세먼지도 줄여 나가고 종사하는 분의 복지에 도움이 되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숫자를 줄여 나가는 대책이라든지, 경유 차량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경유 차량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 나간다는 것 하는 근본대책은 정부 구성이 다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갈 생각입니다.



# 국방부 순시

2017. 5. 17

전방과 후방, 그리고 육지·바다·하늘에서 국토방위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전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사흘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도 높은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치 상황이 급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촛불혁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이 튼튼하게 안보를 받쳐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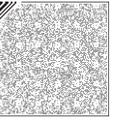
않는 철통같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것입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자주 방위 역량을 갖추는 한편 전쟁 억제력을 위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국방개혁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 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국방 예산을 점차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 개혁을 추진해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이고,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이고 첨단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책임 국방,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진짜 유능한 안보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방다운 국방, 안보다운 안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나의 소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은 유한해도 우리가 사는 조국은 영원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군의 국방 태세에는 한순간도 이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지휘관님들, 군단장님들 대부분은 참여정부 때에도 나와 국토방위를 함께했고, 내가 국회 국방위원이었을 때도 함께 국방을 논의하고 책임졌던 분들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과 대통령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서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 나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나와 장병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 국방으로 유능한 안보를 구축해 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합동참모본부 순시

2017. 5. 17

합참에서도 이순진 합참의장을 비롯한 지휘관들 중심으로 국가 안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셔서 아주 매우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특히 현장 지휘관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안보 현장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군 지휘관들과 장병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참의장님 비롯한 전군 지휘관, 국군 장병 모두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안전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나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도 여러모로 신경 써서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2017. 5. 1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를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입니다.

저는 먼저 1980년 5월의 광주시민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5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5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2017. 5. 1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민주화운동 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 준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5월 광주를 지난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 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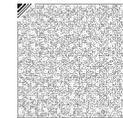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 진상 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



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이들은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도 강제 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5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광주의 시민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 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

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2017. 5. 23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 가운데서, 모든 분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애뜻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렀어도 더 많은 사람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 있는 시민’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

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먼저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정치는 비정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과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정부뿐 아니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우리의 꿈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 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못다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를 다시 하며 환한 웃음으로 반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곳곳하게 견뎌 주신 권양숙 여사님과 유족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2017. 5. 3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스물두 해를 맞은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며 해양 강국으로 명성을 떨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유 선박 수 세계 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의 해운·항만산업은 수출 물량의 99.7%를 책임지며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키워 냈습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포함한 우리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4.5배에 이르며 태평양 심해저, 남극과 북극까지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고의 해양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력으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의 국가 경제 기여도도 아직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2017. 5. 3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가슴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해양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각종 해양 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 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環黃海)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오늘 저는 바다에 대한 새 정부의 약속과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입니다.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익과 튼튼한 안보를 함께 얻기 위해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다를 통해 안보를 든든히 하고, 바다를 통해 경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저까지 빈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 조사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 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 바



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번영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우리 바다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병든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생태계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한반도 주변 해역입니다. 수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 기술로 되살리고, 국가 및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 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수산업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만족하는 고급 식품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값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아울러서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습니다.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 전시(戰時)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해운·조선산업은 이미 세계 최

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 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 낸 해운·조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도 해운과 조선산업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시금석이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 기간 중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해양·수산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장 방문

2017. 6. 2

저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집계된 숫자만 약 69만 명, 그러니까 65세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분꼴로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는 아시다시피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병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꾸 기억이 지워져가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없는 아주 힘든 병이지 않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긴병에 효자 없다”고 치매 환자가 오랫동안 계시게 되면 형제들 간 우애도 금 가기 쉽고, 치매 환자 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치매 환자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저도 치매가 얼마나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본격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겁니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일자리 추경에도 한 2,000억 원 정도는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환자 가족들, 현장 종사자들, 치매 파트너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주무부처의 장관도 오셨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두루 듣고 정책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SNS 메시지

2017. 6. 2

서울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대선 때 공약했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환자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치매 환자 숫자만 69만 명인데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 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입니다. 환자는 기억이 지워지고 자존심을 지킬 수 없게 되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집안에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계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 환자의 돌봄은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만남에는 방송인 김미화 님과 배우 박철민 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철민 님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10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박철민 님의 어머니께서는 기억을 거의 잃으셨고 3~4세 아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계시지만 자식 사랑은 여전하시답니다. 자고 있는 박철민 님에게 다가와 큰 국어사전으로

배를 덮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을 앗아 가는 병마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되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을 목표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첫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오늘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도 생생한 증언과 함께 많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국공립 치매지원센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치매 환자의 요양등급 확대’. 현장에서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당선 축전

2017. 6. 2

##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2017. 6. 6

OECD 국제교통포럼(ITF :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신임 사무총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ITF 사무총장은 OECD 경력직 최고위직으로서, 김영태 과장의 당선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교통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ITF 사무총장 당선은 대한민국 교통산업의 해외 진출에 이바지하고, 민간기업 교류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영태 과장은 우수한 국제적 감각을 가진 젊은 사무총장인 만큼 세계 교통 분야 의제를 이끌 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통 분야의 담론을 이끄는 사무총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예순두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영전 앞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낸 힘이었습니다.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습니다. 항일 의병부터 광복군까지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의 신념이 태극기에 새겨졌습니다. 살이 찢기고 손발톱이 뽑혀 나가면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조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또 다른 독립운동을 키우고 지원하며 나라 잃은 설움에도 굳건하게 살아 났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2017. 6. 6)

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전

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넓혔습니다. 전선을 지킨 것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극기 위에 위국헌신(爲國獻身)을 맹세하고 후방(後方)의 청년과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계를 지고 탄약과 식량을 날랐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용사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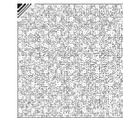
전장의 부상을 안고 전우의 희생을 씻기지 않는 상처로 안은 채 살아가는 용사들, 그분들이 바로 조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반드시 명예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주저 없이 응답했습니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국(異國)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입니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이역만리 낯선 땅 독일에서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 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뜨거운 막장에서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석탄을 캐 파독(派獨) 광부, 병원의 온갖 곳은일까지 견뎌 낸 파독 간호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청계천변 다라방 작업장, 천장이 낮아 허리조차 펴 수 없었던 그곳에서 젊음을 바친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눈이 침침해지고, 실밥을 뜯으며 손끝이 갈라진 그분들입니다.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들께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 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습니다. 파독 광부·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서해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 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 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 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엇보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보훈정책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군사 원호(軍事 援護)에서 예우와 보상으로, 호국유공자에서 독립·민주유공자와 공무수행 유공자까지 그 영역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뜻을 함께 기려야 할 군경과 공무원, 의인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들의 공적에는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개인과 기업의 성공이 동시에 애국의 길이 되는 정정  
당당한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 호국 영령, 민주 열사의 애국헌신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  
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소방대원들과의 대화

2017. 6. 7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생명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일선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관들이죠. 화재를 비롯한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우리 소방관들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다'라는 자부심과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데, 다들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소방관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최길수 대원과 김성수 대원이 생생하게 보여 주신 거죠. 아직 다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 화염이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내 몸은 어떻게 돼도 좋다, 나의 안전은 그다음이다'라는 자세로 두 분이 온몸으로 불길을 가로막는 모습을 국민이 영상으로 직접 다 보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면서 불에 다 타고 그을린 방화복과 소방장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방관으로서 귀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왜 국가가 필요한지 존재의 이유를 직접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관이 제대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충분한 장비를 제공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처우를 해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제가 2015년도 용산소방서에 왔을 때도 우리 소방관들의 헌신·노고·희생에 감사드리면서 소방관 처우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도 소방관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입장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법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죠. 국회는 국회대로 함께, 정부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그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인력 면에서는 지금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 준 분이 작년에 울산에서 순직한 고(故) 강기봉 소방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강기봉 소방관의 빈소에 문상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동기 소방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제게 다 몰려와서 이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분은 임용된 지 1년 하고 몇 달밖에 안 돼서 동기들 가운데에서는 첫 희생자라고 합니다.

더더욱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원래 소방공무원이 전체 법적 기준 인력보다 1만 9,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력 부족 때문에 다른 공공 분야는 전부 다 3교대로 전환됐는데, 소방관은 3교대 전환을 못하고 2교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른 공공부문이 다 3교대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가장 늦게 3교대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원 없이 2교대하던 인원이 3교대로 되니까 인원이 크게 부족하게 된 겁니다. 소방차량이나 119 구조차량이 출동할 때 탑승 인원이 아예 부족한 거죠.

강기봉 소방관의 경우는 김보람 대원처럼 구급 업무 담당이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조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불어난 강물에 희생당하신 거죠. 제가 어제 현충일에 그분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렸습니다. 소방관 출신이신 아버님이 대신 나와서 유공자 증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실인 거죠. ‘국민의 생명, 안전이 제일이다, 그 역할을 소방관이 해낸다’고 하면서도 인력이 법적 기준보다 무려 1만 9,000명이나 부족해 충분한 인원이 소방차량이나 구조차량에 탑승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만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 9,000명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법적 기준 이상으로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소방 인력 확충을 당장 금년부터 실행하기 위해 우리가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추경안에 소방관 1,500명 증원 계획을 포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까지 보태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금년부터 즉각 증원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청이 독립하는 건데 그 부분도 이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속에 다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이 독립해서 화재와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이 맡도록 정했습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군대도 투입되어야 하고, 다른 행정관서와 공조도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공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적어도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소방 책임자의 명에 따르도록 확실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헬기를 비롯한 사다리차 같은 고가 소방장비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착용하는 방화복, 장갑 등의 장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한때는 장비 자체가 부실하기도 하고 공급량이 부족해서 소방관들이 사비로 구입하는 일들까지 벌어져 소방관들의 처지를 빗대어 ‘벌거벗은 영웅’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소방관이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및 차량에서부터 개개인 지급 장비까지 확충하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허상구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라우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방금 최길수 대원은 “그래도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직후에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자신을 괴롭히는 게 외상성 스트레스이고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소방관들이 해마다 꽤 여러 명이 순직하고 수백 명이 공상(公傷)을 입는데, 순직하는 숫자보다 소방관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참혹한 일이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아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치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내에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치유센터 설립과는 별개로 외부 치유센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원의 아침편지’ 같은 곳도 명상센터,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 치유센터와 일종의 협약 등을 맺고 소방관들을 그런 곳으로 휴가를 보내서 치유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방

관이 현장에서 겪는 희생이나 노고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두고두고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게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제 공약 사항입니다. 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빠지면 그만큼 지방공무원 정원이 준다는지, 지방의 소방관서가 위치해 있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관리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를 통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잘 아실 테니까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권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통해서 국가직 전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꽤 됐네요. 소방 인력 확충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다’는 인식이 많아서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행정공무원이라면 몰라도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 보건을 지켜 주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사실 국가 예산도 그보다 더 긴요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용산소방서 방문 후 SNS 메시지

2017. 6. 7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연이은 산불에 맞서 국민안전을 지키고 계신 소방관들을 만나 제가 공약했던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영화 <리베라메>에서 소방관 역을 맡았던 배우 유지태 님도 함께했습니다. 유지태 님은 불에 맞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소방관들의 임무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 중 겪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불에 탄 최길수, 김성수 소방관의 장비도 보았습니다. 불길에 곳곳이 늘어붙은 방화복을 보니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느꼈을 두려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한 채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소방관들입니다.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을 상징하는 두 분의 장비는 두고두고 귀감으로 삼아 우리 국민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몇 번 소방관들을 만났고 2015년에도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적

이 있지만 그 이후로도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소방관들과 함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책임지고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 임기 중 법적 기준에 부족한 소방 인력 1만 9,000명을 증원하고 당장 추경으로 1,500명의 소방관을 늘리겠습니다. 육상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소방청 독립, 더욱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한 장비 확충, 소방관 심리치료센터 설립, 그리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도 단체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재를 비롯한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소방관들은 국가 그 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17. 6. 8

북한은 오늘 아침 또다시 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매달려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비핵화 대화를 재개해 보려는 우리 정부의 선의를 무시한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도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주민들의 배고픔을 가중하고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될 뿐입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누차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비핵화는 남북합의이자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어떤 주장도 그 합의와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 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 태세를 믿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017. 6.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 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 간 넥타이 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 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 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 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 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 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

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민주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 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혁명이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6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민주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민주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민주항쟁은 살아 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

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를 당부합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다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 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10국민대회가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와 27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민주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 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 비민주적 요소는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 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 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사회·경제체도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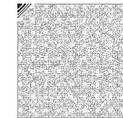
2017. 6. 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 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 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協治)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이 이력



서 백 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 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뜰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病暇)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

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 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터에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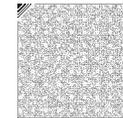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따른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 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 탑승 인력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관, 부서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 서비스, 치매 관리 서비스, 아동안전 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 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 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 사회 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합니다.

더욱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 세대를 두고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만 속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후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 경력 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와 취업 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 3만 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고 청년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와 공동 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 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000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 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 한미연합사령부 순시

2017. 6. 13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한미연합사령부에 처음 방문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합사령관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장군과 부사령관 임호영 장군을 비롯한 한미 장병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한미 간 긴밀한 연합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적 도발 억제에 핵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미연합사령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화상을 통해서 참석하고 있는 각 구성군 지휘관 및 한미 장병에게도 인사드립니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6·25 한국전쟁 후 60년 넘게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그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몰락을 촉진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은 6·25 한국전쟁 이후에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각지에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순시(2017. 6. 13)

21세기에 접어들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안보부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동맹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고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불과 한 달 사이에 다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는데, 이는 한미 해군에게 직접 위협이 되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안보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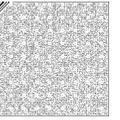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직접 주재하여 대책을 논의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긴밀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되찾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방어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미 장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병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자신감, 그리고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는 연합사 한미 장병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희생정신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철저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연합사 및 각 구성군 한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승과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영어로 'We go together' 하면 여러분께서는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제1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2017. 6. 14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강하게 표현할 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부르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원래 제 공약은 아니고 다른 후보님의 공약이었는데, 제가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법으로 제도화될 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필요하다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예비 형태로 회의를 가지면서 제2국무회의를 사실상 제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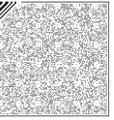
당연히 다루는 사항은 국무회의가 국정에 관한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 앞으로는 제2국무회의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성격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제도화와 정례화 방안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정

부가 의논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도 자치·분권 관련 사항 중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해서 논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과 늘 함께하고, 시·도지사님과 늘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미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사상 처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돼 추경이 마련되면 3조 5,000억 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됩니다.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방에 필요한 예산이고, 중앙정부가 용도를 간섭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난을 해소하고, 특히 청년일 자리를 마련해서 경제를 살려 보자는 데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대선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해서 일자리 늘리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일자리 늘리기,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두루 공약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과 시장에 맡겨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대선 내내 드렸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번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썩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도 이번 추경을 활용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19회 미주한인체전 축전

2017. 6. 14

사랑하는 재미 동포 여러분!

제19회 미주한인체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체전 준비에 애써 주신 안경호 회장님과 장덕환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힘을 모아 주셨던 여러분의 애국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욱 든든한 조국, 자랑스러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주한인체전이 미주 동포 사회의 단합을 한 단계 높이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동포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2017. 6.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6·15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역사적 결단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여사님께 보냈던 존경과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평화를 이룬 한반도를 보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희호 여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좋은 세상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짊어지셨던 역사의 무게가 깊게 느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참된 용기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발걸음은 남북 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 주셨습니다.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2017. 6. 15)



처음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IMF 외환위기까지 극복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6·15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셨습니다. 결코 순탄대호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금창리에 제2의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검토했던 1994년 이후 또다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의 도발 행동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

량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不容)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남과 북은 반목과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몇 차례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남북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가 지켜졌다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다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 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 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습니다. 남과 북은 또 10·4남북정상선언으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 선언을 추진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 주는 증표입니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7년 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뜨겁게 포옹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가슴 뛰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또 기억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 “젓 먹던 힘까지 다했다. 내 평생 가장 길고 무겁고 보람 느낀 날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가슴 뛰던 장면이, 그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 꿈틀거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의 온 거래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남북의 온 거래가 경제공동

체를 이뤄 함께 잘사는 역사,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닫히고 막혀 있었습니다. 남북이 오가는 길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닫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 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상력이 한반도 북쪽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국민 마음속의 분단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벽찬 꿈으로 바뀌어 가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6·15남북정상회담이 이룬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평화·번영정책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

2017. 6. 16

존경하는 진 리첸(金立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총재님,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차총회는 지난해 AIIB 설립 이후 두 번째 총회입니다. 본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총회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뜻깊은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제 행사여서 나 개인적으로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제주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가진 한국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세계가 인정한 환경 보물섬입니다. 유네스코는 제주를 세계 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아시아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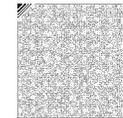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2017. 6. 16)

의 60%,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의 최대 시장이고, 또 중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정치적으로도 각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인류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며 인류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펼쳐 왔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아시아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사는 인류에게 영감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아시아는 한발 늦은 걸음을 시작했지만,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힘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의 힘이고, 다양성의 힘입니다. 지금 인류는 정치·안보·경제·환경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 국가 간 연



대와 협력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취임 후 여러 아시아 정상과 전화로 소통하였고, 아세안을 비롯하여 인도·호주에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시아의 힘이 멋지게 발휘되어 인류는 직면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AIIB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과 지역을 만나게 하며, 현재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연차총회는 ‘지속가능 인프라’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아시아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자체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전기·수도·통신·교통 등은 제조업을 비롯한 연관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특히 빈곤 국가에게는 더욱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서 무선인터넷망 접근성 높이기, 사물인터넷망, 스마트 고속도로 등 새로운 ICT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시아가 더 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20년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연간 1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높은 인프라 투자 수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각국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IIB는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AIIB는 1년 반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7개국이었던 회원국이 역외 회원국을 포함해 7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오늘 3개국이 추가로 가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AIIB는 명

실상부한 국제 다자은행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16개 프로젝트에 25억 달러 규모의 용자를 지원했고, 개발도상국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AIIB 출범을 주도한 중국 정부와 AIIB의 안정적인 출발에 크게 기여한 진 리훤 총재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AIIB가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 방향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프라 투자는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그와 같은 뼈아픈 경험을 했고, 많은 반성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환경 문제는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개발, 또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친화적이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조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脫) 원전국가로 나아가려 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우리



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경험을 AIIB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 투자는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위생·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통신 인프라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균형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함께 잘살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시설이 모든 사람의 접근에 용이한지, 소외된 계층·지역·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포용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건축·토목은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제조업·서비스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향후 ICT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근간에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빨라졌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조업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지방 도시가 발전하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프라 강국 한국을 대표합니다.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의 여러 이웃 국가와 나누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경험은 베트남의 하노이-하이퐁(Hanoi-Haiphong)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남북을 잇는 31개 다리 건설 경험은 필리핀 민다나오(Mindanao) 팡일만(Panguil bay) 교량 건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노하우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공항의 건설에도 전수될 예정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실현했습니다. 전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경험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대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동서가 연결되고, 시장이 열리고, 문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극동쪽 종착역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끊겨



진 경의선 철도가 치유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차총회가 AIIB의 미래 투자 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적 결과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아시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AIIB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물질·인적 기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차총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AIIB와 기획재정부, 제주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2017. 6. 19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1977년 완공 이후 40년 만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리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가동 첫해인 1978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9%를 감당했고, 이후 늘어난 원전으로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1971년 착공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리1호기가 가동되는 동안 많은 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고리1호기와 함께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고리1호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이 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리1호기의 관리에 애써 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리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톨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세 전에도 진도 2.1의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9개월째 총 622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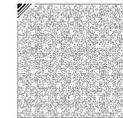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 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 수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렸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입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



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원전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 설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되었습니다. 그 보강이 충분한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새 정부 원전정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의 탈핵·탈원전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을 걸쳐 서서히 줄여 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애플(Apple Inc.)도 태양광 전기 판매를 시작했고, 구글(Google Inc.)도 구글 에너지를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 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는 첫걸음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태양광·해상풍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 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탈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독일·일본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산업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유지해야 합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탈원전·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2017. 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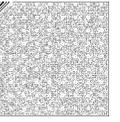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되어서 드디어 일자리위원회가 틀을 갖추고 첫 회의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청년고용절벽의 해결책이며,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대책이기도 합니다. 또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노동계·금융·정부로 단순화하지 않고 비정규직, 청년·여성, 어르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직능별·계층별 대표를 함께 모셨습니다. 위촉을 수락해 주신 각계 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대표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양대 노총 대표께서는 오늘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아마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가지기도 힘들었을 텐데 결단을 내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영계를 오늘 처음 만납니다만,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친기업이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2017. 6. 21)

기도 합니다. 우리 경영계도 정말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 드리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누누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으며,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어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어르신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 바로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합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어우러져야 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정책 면에서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합니다.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청사진을 보여 주고 각계 대표들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신규 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아진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모아 발표를 하거나 홍보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공공부문 추진 로드맵과 민간부문 추진 원칙을 위원회가 조속하게 방향을 정해서 시장의 공급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 정책을 거기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정책 수단을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모든 정책이 일자리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자리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델을 만들어 향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 일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가 큰 틀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동계에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국정외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다릅니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중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입니다.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요즘 노동계에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만든 약 1,600억 원 정도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쓰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 금속노조는 정규직 노동자와 사 측이 절반씩 출연해서 사회연대기금 또는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노동계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 노력을 보여 준다면 일자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동운동도 더 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입니다. 상견례 겸 앞으로 우리 일자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6·25 한국전쟁은 아픈 역사입니다. 한반도 땅 대부분이 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토는 복구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아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부리는 아직도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한들 가족을 잃고, 전우를 잃고, 고향을 잃은 아픔이 쉽사리 씻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다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나와 정부는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과 압도적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평화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와 정부는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도 열어 두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드는 평화라야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전용사 여러분께서 안보 대통령의 지원군이자 평화 대통령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 단단하게 맺을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 그리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전용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2017. 6. 24

제23회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 주신 위자이칭(于再淸) IOC 부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 세계태권도연맹(WTF : World Taekwondo Federation) 조정원 총재님, 세계 183개국에서 오신 선수단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길을 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신 장웅 IOC 위원님과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 Intentional Taekwondo Federation) 총재님, 북한 ITF 시범단에게도 진심 어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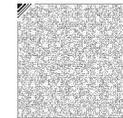
저는 먼저 태권도정신을 닮은 이곳 무주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무주는 이름부터 통합과 화해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신라의 무풍과 백제의 주계로 나뉘었던 땅이 합쳐져 무주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무주는 예로부터 무예인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구천동은 호국무사(護國武士) 9,000명이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주에서 신라와 백제가 하나가 되었던듯, 오늘 이곳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

태권도연맹(ITF)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예인의 정기도 흠뻑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태권도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무예에서 8,000만 명이 수련하는 세계인의 무예 스포츠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232개 나라의 청소년들이 흰 도복을 입고 체력과 인성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검은 띠를 두른 민간 외교관으로 태권도를 세계에 알린 수많은 사범과 수련생, 세계 태권도 가족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로 태권도인과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는 예의에서 시작해 예의로 끝나는 무예입니다. 수련을 통해 강건한 신체를 만들지만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으로 그 능력을 선하고 정의로운 곳에 사용하도록 배웁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태권도 가족들은 인류의 평화와 공존, 번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태권도연맹이 펼치고 있는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박애재단을 만들어 전 세계 난민촌과 재난지역,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Tomas Bach) IOC 위원장이 꼽은 가장 모범적인 국제 경기 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이어 올해 9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 대회에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답방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방이 꼭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의 큰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세계태권도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친선 경기도 성사되어 세계 평화의 반석 위에 태권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스포츠는 모든 장벽과 단절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입니다. 함께 흘리는 땀은 화해와 통합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이 평풍외교로 평화를 이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 통합 리그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축구연맹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만들어 온 스포츠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 교류·협력이 이뤄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치러지는 세계태권도연맹대회에서 국제태권도연맹이 시범을 보이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연맹의 화합과 친선은 물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태권도에서 이루어 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 증진이 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 보고 싶습니다.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여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장웅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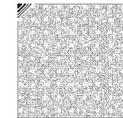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일곱 번째 대회입니다. 그러나 대회 조직 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처음이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머무시는 동안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의 문화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이연택 조직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성심으로 지원해 주신 송하진 전북도지사님과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551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선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2017. 6. 28

존경하는 로버트 넬러(Robert Blake Neller) 해병대 사령관님, 올스테드(Steven Olmstead) 장군님을 비롯한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여러분, 흥남철수작전 관계자와 유족 여러분, 특히 피난민 철수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알몬드(Edward Almond) 장군님과 현봉학 박사님의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던 곳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 순방의 첫 일정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 더욱 뜻이 깊습니다.

67년 전인 1950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6·25 한국전쟁에서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가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메리디스 빅토리호(SS Meredith Victory)에 오른 피난민 중에 나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피난민을 구출하라는 알몬드 장군의 명령을 받은 고(故) 라루(Lenoard Larue) 선장은 단 한 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무기와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무려 1만 4,000명을 태우고 기뢰로 가득한 죽음의 바다를 건넌 자유와 인권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2017. 6. 28)

의 항해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를 떠나 12월 25일 남쪽 바다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이었습니다.

2년 후 나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세상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과 감사라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넘어서서, 나는 그 급박한 순간에 군



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이유입니다.

지금 아흔이신 내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배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한 알씩 나눠 줬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 준 따뜻한 마음씨가 나는 늘 고마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용사와 후손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기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습니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저의 삶이 그런 것처럼 양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용사와 후손 여러분!

67년 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빅토리오의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굳게 손 잡고 가겠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폐기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원이었던 로버트 루니(Admiral J. Robert Lunney)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죽기 전에 통일된 한반도를 꼭 보고 싶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이곳에 한 그루 산사나무를 심습니다. 산사나무는 별칭이 윈터 킹(Winter King : 겨울의 왕)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영웅적 투혼을 발휘한 장진호 전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무처럼 한미동맹은 더욱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라는 크고 알찬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이 50여 분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장진호 참전용사와 흥남철수 관계자,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  
한미 비즈니스 서밋

2017. 6. 28

토마스 도너휴(Thomas Donohue)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입니다.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국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합니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집니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종합적 일자리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중요성에 공감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노사정 대화 채널도 복원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근절할 것입니다. 진입 장벽, 가격 규제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성장입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



한미 비즈니스 서밋(2017. 6. 28)

리는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은 한국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토대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규제 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동반자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 투자처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우정을 나누는 식탁에는 오래 묵은 향긋한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요즘 한국의 식탁에서도 미국산 와인이 인기입니다. 교역의 확대가 양국 국민의 실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인의 활발한 상호 투자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생산 공장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수 기업이 한국에서 산업 혁신과 연구개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동아시아 지역의 관문이고, 미국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미래의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양국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자동차, 스마트 가전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플랜트 건설 경험과 미국의 사업 개발, 엔지니어링 기술이 협력하면 해외 발전소 건설·운영에도 동반 진출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동반 진출은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이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입니다.

나의 오늘 방문이,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과의 만남이 양국 경제계 간의 우호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양국 경제인이 창의와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미동맹의 역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안보 위주의 전통적 동맹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양국의 경제인에게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한미 경제인 여러분!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됩시다. 두 나라가 더불어 잘살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번영의 길로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영상 축사

2017.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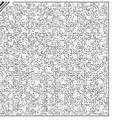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2017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화두는 혁신과 융합입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3D 바이오 프린팅과 같은 첨단 융·복합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혁신적이고 놀라운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가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의약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투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실력 있는 바이오벤처와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산업 전반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규제 역시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국제 기준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의약품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함께 정부가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힘을 모으는 것도 그 결실을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 전체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골고루 지켜질 때 바이오의약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콘퍼런스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 영상 축사

2017. 6. 29

신문은 세상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창입니다.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난 세월 신문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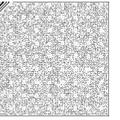
독립신문에 뿌리를 둔 한국의 신문은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제와 독재에 맞서다가 고초를 겪기도 했고 한 건의 기사, 한 장의 사진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기도 했고, 경제성장과 정보화의 나침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의 응원과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했고, 비판과 질책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신문의 그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우리의 과제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은 민주주의가 신문에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 없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신문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인 이유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시민 의식의 성장이 우리 신문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신문인 여러분의 노력과 성취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신을 지키는 언론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신문은 국가 지식 역량의 보고이자 우리 사회가 소중히 키워 가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국 언론의 역량 강화와 공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의 창립 6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 영상 축사

2017. 6. 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경제인 여러분!

2017 사회적경제 주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덧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2만여 개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이 인권과 노동권, 고용과 복지,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써 주신 결과입니다. 25만 사회적경제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윤과 효율을 넘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운용 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을 약육강식,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모는 대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람회의 슬로건이기도 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함께하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사회적경제 제품의 책임 조달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이 질 좋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미 진보·보수를 초월해 사회적경제 확대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조금은 느리지만 착실하게 사회적 가치의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직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과 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길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6. 30

우선 백악관으로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승리를 달성한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미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어온 위대한 동맹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과감하고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 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 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함께 풀어 갈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워비어(Otto Warmbier) 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미 국민의 비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인권 변호사였던 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 온 한미 양국 국민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께서 보여 주신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  
**CSIS\* 전문가 초청 만찬**

2017. 6. 30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에 나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에도,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미 양국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 온 우정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호레스 알렌(Horace Allen)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주도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리 임시정부와 협력해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미국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



1950년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전 내가 미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지옥보다 더한 추위’를 견디며 싸웠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홍남철수가 가능했습니다.

홍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홍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SS Meredith Victory)는 무기 등 전쟁 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무려 1만 4,000명의 피난민이 살기 위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내 누님의 생일인 12월 23일 홍남을 출발해 12월 25일 대한민국 남쪽 땅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항해였습니다. 5명의 새 생명이 항해 중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2년 후 빅토리호가 도착한 거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때 미군이 구출했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 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끈 두 바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미국이 한국에 전파한 것이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



CSIS 전문가 초청 만찬(2017. 6. 30)



마운 동맹입니다. 미국의 아·태지역 리더십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 한국 역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오는 동안 양국의 많은 국민이 교류했고 종교와 문화, 학문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진지를 지켰던 어느 병사, 빅토리호를 운항했던 어느 선원이 오늘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깊고 굳건한 동맹입니다. 양국의 동맹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민의 촛불혁명이 세계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지금보다 민주적인 나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이 연설의 주제인 위대한 동맹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Oliver Prince Smith) 사단장은 흥남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 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남북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입니다. 9·19공동성명의 이행 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 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북핵문제를 넘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테러리즘·환경 문제·난민·기아·전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민주·평화·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평화 정착과 재건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 동맹이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 가치의 재건에 기여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워비어(Otto Warmbier) 님의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또 열매입니다. 나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사가 워비어 님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던진 충격과 비통함에 공감합니다. 워비어 님과의 이별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 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7. 7

[미국 방문]  
워싱턴 동포 간담회

2017. 7. 1

방문 첫날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는 곳곳에서 동포 여러분께서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미국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다 손을 잡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동포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니 저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푸근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여기 워싱턴뿐만 아니라 멀리 알래스카(Alaska)와 마이애미(Miami), 그리고 바다 건너 하와이(Hawaii)에서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멀리 하와이에서 오신 동포들 어디 계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2012년 대선 때도,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해외 동포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새로운 기록이 많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도 그런 기록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2년보다 투표자 수가 무려 40%나 늘었습니다. 그 높은 투표율 중심에 동포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새 정부는 해외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어준 동포 여러분의 염원으로 출



워싱턴 동포 간담회(2017. 7. 1)

범했습니다. 그 힘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비롯해 제가 만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모두 촛불혁명을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해 주었고,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저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번 미국 방문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방문이었고 값진 성과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이틀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두 정상 간에 깊은 우의와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한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저는 이 변화와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미동맹, 앞으로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번 방미 전까지 지난 여러 달 동안 국내외에서 정상외교 공백에 따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다시 확인되

었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포 여러분의 기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1903년 1월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에 첫발을 내디딘 102명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1950~1960년대 6·25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와 가난을 이기기 위해 청소부로, 세탁원으로 이국땅에서 고생하셨습니다. 1세대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이 2세대·3세대 동포의 눈부신 활약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포들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양국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마음속에 늘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찬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3·1운동 때에는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정에는 늘 동포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동포 청년들이 조국에 자원입대하는 일이 늘면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귀국길에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우리 문화재 두 점이 함께 돌아옵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입니다. 많은 분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민석 의원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시민단체와 재외동포사회의 노력이 거둔 결실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찾는 과정에서도 힘을 모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민석 의원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포 여러분과 국내의 국민은 사는 곳은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곳에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게 내 조국이나.’ 다시는 이렇게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세워 놓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면서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 재외동포가 720만 명에 달하고 한 해 해외 여행객만 해도 2,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동포의 안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테러와 범죄, 재난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재외공관을 재외공관답게 만들겠습니다. 재외공관이 없거나 부실해서, 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 서비스를 위해 영사 인력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전자 행정으로 영사 서비스도 혁신해서 동포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포 거주국과 거주 지역에서 역량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재미동포의 정치적 역량이 커진다면 대한민국 미래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 동포들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을 만나 보면 후손의 민족 정체성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킬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쁠 때 함께 웃어 주셨고, 대한민국이 아플 때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세계 어디에 이토록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동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 기쁨과 자부심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동포 여러분의 자량이 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방미 귀국 인사

2017. 7. 2

국민 여러분!

걱정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의 외교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정과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그 첫발을 떼었습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습니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과 정권 교체를 통해 보여 준 수준 높은 민주 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받은 대접과 외교적 성과도 전적으로 그 덕분입니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2017. 7. 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재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어찌 새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아홉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친 분도 무려 스물일곱 분에 달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현실이 이런 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와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습니다. 산업안전대책조차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습니다.

이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먼저,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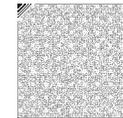
둘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방문]

## 독일 의료 지원단 접견

2017. 7. 5

독일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파견해 준 의료 지원단, 그리고 의료 지원단이 설립한 독일적십자병원의 역사를 알려 줄 수 있는 칼 하우스(Karl Hauser) 선생님과 당시 그 병원에 근무했던 분들의 가족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적십자병원이 있던 부산이 내가 자란 곳입니다. 독일적십자병원과 우리 집과의 거리가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독일적십자병원이 떠난 후에 그 자리에 부산여자고등학교라는, 명문 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섰는데 내 여동생이 바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에게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한국전쟁 중에, 그리고 전후(戰後)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에 구호 활동과 의료 지원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독재정권 시절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도 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리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독일은 한국처럼 전쟁의 고통을 겪었고 분단의 경험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고, 그 힘으로 유럽 통합을 이끄는 주

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일에게 아주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적십자병원을 통한 의료 지원 활동은 그동안 많이 잊혀져 있었습니다. 사실 의료 지원단의 파견은 6·25 한국전쟁 도중에 결정된 것이었는데, 의료 인력 확보라든지 준비 단계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독일적십자병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독일은 6·25 한국전쟁 중에 의료 지원으로 참전한 국가 중 하나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우리 칼 하우스 선생님과 독일 적십자사 자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어려웠던 시절 독일이 의료 지원 활동을 해 주었던 것에 대해 이번 독일 방문길에 감사를 표합니다.

생존해 계신 칼 하우스 선생님과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의 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한국을 방문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독일적십자병원이 있던 부산의 변모와 발전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을 뵙고 우리가 이 고마움을 제대로 표할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독일 방문]  
독일 동포 간담회

2017. 7. 5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지난주에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틀 만에 오늘 독일에 왔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방문 첫날 첫 일정으로 이렇게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겨울부터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외교에, 특히 정상외교에 큰 공백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요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만나는 분마다 한국의 촛불혁명을 부러워하며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독일에서도 유력 언론 디 차이트(Die Zeit)가 민주주의 모범으로 보도했고,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W: Deutsche Welle)도 '2016년에 일어난 좋은 일들' 세계 10대 뉴스 중에 두 번째로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동포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떻게습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여기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도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한 일이지만, 저는 이런 부끄러움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승화시킨 우리 국민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 낸 광장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승리가 외교 무대에 처음 서는 대

통령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베를린도 한겨울에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광장에서 많은 분이 촛불을 들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셨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미국 방문은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공조는 아주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다 해소됐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동포 여러분의 걱정도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래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방인 독일과의 협력도 더 공고하게 다지겠습니다.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통상 분야와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양국의 유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도 더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중한 가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뵈 때마다 여러분의 조국 사랑에 늘 감동하고 목이 멎습니다. 오늘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역만리 독일의 뜨거운 막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병원의 고된 일을 감당



하신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이 있었기에 조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달라진 조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우리 관광객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집트 폭탄 테러 때는 우리 국민 3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재외공관의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동포 2세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지속해 가겠습니다. 후손들의 민족 정체성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한글학교를 적극 지원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선거 제도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이곳이 지금은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

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에 누군가는 통일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닦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독일 방문]  
**한독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7. 5

감사합니다. 구텐 아벤트(Guten Abend :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축하 전화를 해 주신 데 이어 초청해 주시고, G20 정상회의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독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앞장서 대응해 나가면서 전 세계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고비마다 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고마운 우방국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한독 정상 공동 언론 발표(2017. 7. 5)

북한은 어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여러 정상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태인 독일과 많은 부문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 경제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독일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도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지향하는 만큼 에너지정책 비전에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메르켈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며, 모레 함부르크(Hamburg)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렌 Dank(Vielen Dank : 매우 감사합니다).

[독일 방문]  
**콰르버재단 초청 연설**

2017. 7. 6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울젠(Thomas Paulsen) 콰르버재단(Korber-Stiftung) 이사님과 모드로프(Hans Modrow)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 통합과 세계 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콰르버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고(故) 헬무트 콜(Helmut Josef Michael Kohl)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 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Berlin)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입니다. 여기 알테스 슈타트 하우스(Altes Stadhaus)는 독일 통일 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 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코르베재단 초청 연설(2017. 7. 6)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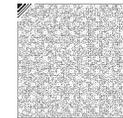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독일 국민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시민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했고, 양측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비(非)정치적 민간 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고, 양측 국민의 닫힌 마음을 열어 나갔습니다.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유럽에 평화 질서가 조성될 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양독 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았습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첫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 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게 베를린의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기억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남북정상 회담으로 이어졌고, 분단과 전쟁 이후 60여 년간 대립하고 갈등해 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채택했습니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더욱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나의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건어치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 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더 근본적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

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停戰)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베이징(北京)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0·4남북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병이나 산림 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습니다. 민간 교류의 확대는 짝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 갈 소중한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 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남과 북은 10·4남북정상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단 독일의 이산가족은 서신 왕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 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를 희망합니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후 2020년에는 하계올림픽이 도쿄(東京)에서, 2022년엔 베이징(北京)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 평화,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



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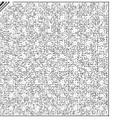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 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 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땔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냉전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지만 지금은 지역주의와 테러, 난민 문제 등 평화에 대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독일이 베를린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독일 사회와 유럽의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냉전의 해체를 서울과 평양에서 완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동북아와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평화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 세계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굳세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기조연설**

2017. 7. 7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테러에 대한 여러 정상 의견에 공감하며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테러에 대한 폭력적 극단주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다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특히 피해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테러 집단들의 자금 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합니다.

G20 정상 여러분!

원래 예정된 주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G20 공동의 관심과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G20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G20 정상회의 기조연설(2017. 7. 7)

앞두고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과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 되어버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하여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이 결코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오히려 안전과 발전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핵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할 때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G20 정상들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이루어져야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G20 정상 여러분의 전폭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2017. 7. 7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 주도 성장, 둘째, 공정경제, 셋째, 혁신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먼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입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성장입니다. 교육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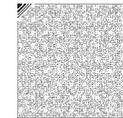
세계 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의장국인 독일의 지도력으로 G20이 마련한 '회복력 원칙(Resilience Principle)'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정책 수단을 제한하고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G20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가 위협에 노출되고, 선진국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지가 재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말 11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G20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작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

역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영상 축사

2017. 7. 7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인의 도전을 응원하며 그 열정과 노력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나마 응원과 감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해마다 과학기술 연차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안과 비전에 대한 탁월한 지성의 힘을 보여 주고 있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같은 방향,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가치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최고 지성들이 들려주는 자성의 목소리가 향하고 있는 곳도 바로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와 같은 포용적 가치를 고민하는 여러분에게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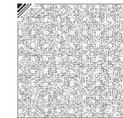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대회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는 적극 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학연과 정부, 사회 각 분야의 역량을 집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 연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행정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들도 과학기술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꿈이 국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차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방문]

## G20 정상회의 제4세션

2017. 7. 8

의장국이 지난 5월 G20 최초로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 이슈를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룬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신종 감염병과 항생제 내성 문제 등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WHO의 긴급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료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2020년까지 13개국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G20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합니다.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대량 난민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난민 문

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그것이 아프리카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의장국이 제안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구상과 아프리카연합의 어젠다 2063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기후변화는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회입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기반을 만들어 여성들의 경력 단절 요인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지도자도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새 내각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임기 내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기업가기금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6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 축사

2017. 7. 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보보호 분야 관계자 여러분!

제6회 정보보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오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산업을 선도했던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는 한편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 보안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첩병이며, 4차 산업혁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정보보호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첨단화·국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국가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 취약 지점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처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나아가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을 높여하겠습니다. 보안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보안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에 특화된 정보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정보보호의 날이 이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함께하신 여러분이 정보보호 생활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보보호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국정과제 보고대회

2017. 7. 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의 노고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1번가’에 총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 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청신호를 켜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환경·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보고대회(2017. 7. 19)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 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 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열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고(故) 김군자 할머니 추모 SNS 메시지

2017. 7. 23

##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

2017. 7. 27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는 16세에 납치당해 중국에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후 일본의 전쟁 범죄를 증언하고 기부를 통해 남을 돕는 일에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강인한 생존자, 용감한 증언자이셨던 김군자 할머니.

지난 2015년 12월 31일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를 뵈었을 때 “피해자는 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안하십시오.

지난번 미국 방문 때 경제인 여러분이 동행해 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빨리 한번 모시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제야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국가경제에 헌신하고 공헌하는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기업인이 나라 전체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업의 성공에 몰두한다고 해도, 기업을 성공시키는 게 곧바로 국가경제에 헌신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기업인의 헌신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국가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정부나 대통령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염려 마십시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헌신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도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서로의 선의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도 더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마침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경도 통과되고, 조각도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시기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도 했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 정부도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와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경제 패러다임은 투자를 중심에 놓고, 투자를 확대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외환위기 전까지는 아주 성공했고, 그 덕분에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이 지난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까 국민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서 양극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소비 능력이 커지면 우리 내수가 살아납니다. 내수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돌아가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양극화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나가 보니까,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G20 모

든 국가와 거기에 함께 참가한 OECD,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모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나라, 모든 경제기구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특별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한 추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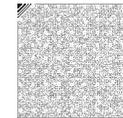
그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 국가경제가 살아나면서 결국 혜택은 기업에게 가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기업의 성공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제인들께서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그 자체가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주도하는 것은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기업은 일자리 면에서야 노동 조건도 가장 좋고, 고용도 많이 하는 모범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지, 혹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를 해소할 만한 여지가 없는지 좀 더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도 과거에는 투자를 늘리는 것에 여러 가지 지원으로 유도했듯이, 고용을 늘리는 것에 세제와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대기업에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



소기업과 사이에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법안도 여러 개 제출돼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법이라든지 외부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기업은 가장 모범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기업이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서서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방안까지도 마련하신 것을 제가 꼭 봤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체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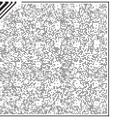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발 규제 좀 개혁해 달라는 바람이 많을 겁니다. 정부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안전이나 생명을 위한 규제와 공정경제를 위한 규제로 이런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데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든지, 또는 관료의 이익을 위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하나하나 없앤다는 것이 너무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아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입하거나, 또는 규제 일몰제를 시행하는 등 아주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이 머리 맞대고 함께 지혜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규제를 풀면 기업도 그만큼 투자가 늘고, 고용도 늘어서 그것이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함께 보여 주면,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데 국민의 공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까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 제한 없습니다. 국가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좋고요, 기업의 애로도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해 주시면 가능한 부분은 오늘 답을 드리기도 하고, 오늘 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라도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다른 기업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도 만날 생각이요 노동계도 만나볼 생각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타협하고, 양보하고, 고통도 분담하고, 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제1회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2017. 7. 28

인터넷신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터넷신문이 걸어온 길은 시민들의 언론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개척해 온 온라인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이 미처 전하지 못한 정치·경제 이슈는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애환과 고충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지역의 풀뿌리 뉴스를 전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담아낸 것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회원사 여러분, 오늘 수상하시는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전 여러분이 초청한 대선 후보 인터뷰 자리에서 저는 인터넷신문은 새로운 유형의 언론이며 독자적인 산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IT 강국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자 뉴미디어 시대의 발전 동력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와 생활·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그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신문이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과 창의적 의제 창출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회원사의 발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2017. 8. 8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연을 들으면서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앗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 그리고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절규하는 부모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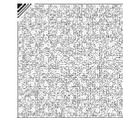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와 원인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제조기업 간의 사적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미흡했고, 피해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2017. 8. 8)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 정부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 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편하게 정부와 국민이 그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발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

2017. 8. 9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 가족 여러분께 가슴 깊이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의료인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니 촛불로 빛나던 광장이 떠오릅니다.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우리 국민 마음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 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이릅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기



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 명에 이릅니다.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 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 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환자와 보호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삶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 키워 가는 현장에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골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 가겠습니다.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



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  
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  
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  
습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  
겠습니다. 대학병원과 국공립 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  
증 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  
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의  
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  
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  
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  
록 비효율적이고 낭비하는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부담은 최  
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다 함  
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투병 중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작곡  
가가 되고 검사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희망을 지켜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  
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  
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  
겠습니다.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보험정책 발표 SNS 메시지

2017. 8. 10

어제 다섯 살 다인이를 만났습니다.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러 간 병원 내의 어린이학교에서 다인리와 함께 색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인리는 태어나 자마자 앓게 된 병으로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도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다인리는 너무도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탓에 희귀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중 그 어디에도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꼭 필요한 약품에 대한 비용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만난 이경엽 군은 난치병 재발로 고생하고 있지만 음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투병과 감염 우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수능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경엽 군과 같이 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너무도 좁습니다. 또한 경엽 군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아야 하는데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더라도 실제로 기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어머니께서 직접 적어 주신 두 통의 편지를 읽고 담당 비서관에게 현황을 물었습니다. 알아보니 현재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락과 사각지대를 없애서 다인리와 같은 극도의 희귀질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률과 약품, 주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병 중에도 대입의 꿈을 키우는 경엽 군과 같은 검정고시 출신이 수시와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입시전형은 이미 확정되어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혈모세포나 장기 기증은 현재 무상 기증 원칙에 따라 기증에 수반되는 진료비와 유급휴가 보상금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이 절박한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기증자의 선의에만 기대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강구하겠습니다.

유다인 양 어머니와 이경엽 군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쓰신 두 통의 편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픈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애틋한 심정을 필체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인리는 힘든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아픈 중에도 음악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공부하고 있는 경엽 군, 참으로 장합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다인리와 경엽 군뿐 아니라 투병 중에도 희망을 지켜가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제3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서면 축사

2017. 8. 10

사랑하는 재미 동포 여러분과 한국학교 선생님 여러분!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례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학교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우리말과 글,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 왔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1,000여 개의 한국학교가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의 열정과 헌신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말도 잊은 채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8,000여 명의 선생님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학교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관계자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동포는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넓혀 가는 힘ियो, 자산입니다. 그런 만큼 해외에 거주하는 차세대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가르치고 우리말과 글을 익히도록 하는 일은 각자의 올바른 성장은 물론 조국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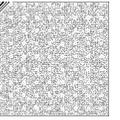
새 정부는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포 자녀들이 한민

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교재 보급 확대,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학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포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가 교육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서로 공유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모두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띤 토론은 차세대 동포들을 미국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미래 인재로 키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

2017. 8. 14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비도 와서 연로한 어르신들께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편안하게 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내일 광복 72주년을 맞게 되는데 독립유공자와 유족, 멀리 해외에서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오찬 행사에 처음으로 모셨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강제 징용으로 후쿠오카(福岡) 탄광에서 고생하신 최한영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칼로 항거했던 독립투사와 강제 징용으로 희생당한 국민 삼천만의 한결 같은 염원은 오직 조국 해방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한마음으로 자주독립을 기원했던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말과 글을 쓰고 우리 문화를 즐기는 오늘의 소중한 일상이 가능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숭고한 애국심이 병역의무가 없는 해

외 동포 청년들의 자원입대로, 연평해전 젊은 용사의 심장으로 이어져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충분한 위로와 보답이 되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보훈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현장을 폭넓게 발굴하고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때에 제대로 된 보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훈정책은 선열들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입니다.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여기 현수막의 글귀처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분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쉰여덟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룰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처와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보훈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공자 여러분의 건강과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장례 의전 확대 등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손자녀 보상이 선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돼서 다른 자녀·손자녀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상은 지금처럼 지급하면서 생활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2017. 8. 14)

어려운 모든 자녀·손자녀를 위해 생활 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안장식이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 있게 진행되도록 장례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평해전 때 중상을 입은 문병옥 일병 아버님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중경상을 입은 장병의 전역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와서 설움이 복받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인편으로 직접 성의 있게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뜻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손들이 독립운동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하여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보훈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신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던 2004년 광복회장으로 이 행사에서 대표 인사를 하셨던 김우전 고문님께서는 오늘 휠체어까지 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 미국에서 4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과 아내 헬렌 안 부부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창호 선생이



유품으로 남긴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근원이 되는 임시 정부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1년에 하루 있는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오늘처럼 국가에서 예우 받고 있다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보훈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2017. 8.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하이(上海)에서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100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 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 내고 땀땀을 보탠 분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 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 독립단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목소리로 대한 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이 지난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정신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 낸 모든 분,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臨淸閣)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家産)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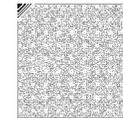
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아홉 칸 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힌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



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 동원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피해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니다. 밝혀진 사실은 그것대로 풀어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 동원 피해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 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 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분

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 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東京)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서틀 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피해자 명예 회복과 보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간담회

2017. 8. 16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로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 다섯 분이 소식이 없어서 정부도 애가 탑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가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미수습자 문제 외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인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 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의 한을 풀어 주고 아픔을 씻어 주기 위해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체 침몰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응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유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면서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 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늦게나마 마련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말씀이 끝나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전해철, 김철민, 박주민 의원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께서 답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 8. 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가슴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의 희생



취임 100일 기자회견(2017. 8. 17)

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 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주거·안전·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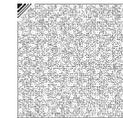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정책 제안에도 8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준하 선생 서거 42주기 추모사

2017. 8. 17

오늘은 장준하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마흔두 해가 되는 날입니다. 4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고, 민주주의는 독재의 어둠 속에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풍찬노숙(風餐露宿)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생의 전 생애는 애국을 향한 대장정이었습니다. 42년 전 오늘, 국민은 가슴 치는 비통함을 딛고 선생의 길을 잇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장준하 선생은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두에게 꺾을 수 없는 자긍심이자 지표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선생과 함께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만의 역사를 온몸으로 돌파한 스물여섯 살 청년 장준하가 가슴에 살아 있는 한, 독재에 맞서 정의와 양심을 수호한 언론인이자 민주주의자인 장준하가 역사에 새겨져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국민은 장준하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친일과 독재 세력이 그토록 감추고 없애려 했던 평화와 정의, 민주주의를 향한 선생의 의지와 충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함성으로, 2016년 촛불혁명의 불꽃으로 기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생에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서거한 지 42년이 흐른 지금도 선생을 우리 곁에서 빼앗아 간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5년 서거 40주기를 맞아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장준하특별법(「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선생이 꿈꿨던 평화로운 나라,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평생을 바쳐 온 애국의 가치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과 독재 세력이 왜곡하고 점유해 온 애국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은,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 국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기릴 때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민족의 자주독립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온 생애를 불태운 선생의 영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나라, 남과 북이 평화롭게 화합하는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선생의 후손으로서 감당해야 할 소명임을 깊이 되새깁니다.

장준하 선생 서거 42주기를 맞는 오늘 이 자리가 조국의 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신명을 바친 선생의 위업을 받들고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께서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2017. 8. 18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대통령님께서 평생 동안 걸었던 민주화와 인권, 서민경제와 평화통일의 길을 되새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년 4월 저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하의도를 찾았습니다. 생가와 모교를 방문했고, 마을분들과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과제에 앉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하의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섬에서 자라면서 그토록 원 없이 바닷바람을 맞고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지금도 바다가 그렇게 좋다”고 대통령님께서 자서전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거제도 바다, 제가 자란 부산 영도의 바다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섬 하의도에서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은 목포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세계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요, 국가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낸 대통령님의 삶에는 이희호 여사님이 계십니다. 여사님은 대통령님과 함께 독재의 온갖 폭압과 색깔론과 지역 차별에도 국민과 역사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2017. 8. 18)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낸 동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희호 여사님과 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전대미문의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심정도 같았을 것입니다. 1998년 취임 연설 중에 국민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 또렷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배어 나오는 그 모습에 국민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을



민고 단합했습니다. 나라 빛 갠 데 보태라며 아이 돌 반지까지 내놓은 국민의 애국심과 뼈를 깎는 개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벼랑 끝 경제를 살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대통령님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통같이 강화하고, 평화는 평화대로 확고하게 다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가 지켜졌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진 지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전과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의 전통 앞에서 다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함께 이뤄 가겠습니다. 국민통합과 적폐청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과제도 민주정부의 자부심, 책임감으로 온 힘을 다해 해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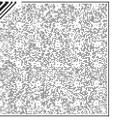
80년 전 하의도 소년은 청운의 뜻을 품고 설레는 가슴으로 목포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고 《김대중 자서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소년의 이름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 대통령님의 길

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발전하는 역사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2017.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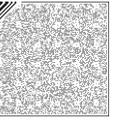
국민인수위원회는 마감이 됐는데요. 광화문1번가를 통해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받아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정치가 낙오됐다, 낙후됐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치가 잘못할 때는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정책을 직접 제안해 그것을 반영하게 하는 등 국민께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도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해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2017. 8. 20)



## 이순진 합참의장 이임식 SNS 메시지

2017. 8. 20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했다는 말을 듣고, 따님이 있는 캐나다라도 한 번 다녀오시라고 캐나다행 항공권 2매를 대통령의 특별한 전역 선물로 드렸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삶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합참의장 이·취임은 이·취임뿐 아니라 평생을 군에 몸 바치고 최고 지휘관이 된 최고 군인의 전역식을 겸하는 것이어서 더욱 명예로운 자리로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임하는 이순진 대장은 3사 출신 최초의 합참의장이었는데, 42년간의 군 생활 동안 45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관 생활을 할 때 공관 조리병을 원대 복귀시키고 부인이 직접 음식 준비를 하면서 공관병을 한 명만 두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칭찬했더니 부인은 “제가 직접 음식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여서요”라고 했고, 이순진 대장은 “제가 입이 짧아서 집사람이 해 주는 음식을 좋아합니다”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이순진 대장은 전역사에서 아내의 고생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부인은 전역사를 마치고 내려온 남편을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 2017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영상 축사

2017. 8. 30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사이버 범죄 전문가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이자 도약의 기회입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과 산업 지도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라는 어두운 이면 또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보안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첨단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사이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과 공동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사이버 안전 확보

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열어 가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개최식

2017. 8. 31

동아시아와 중남미 각국에서 오신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특히 내 삶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67년 전 전쟁의 상흔이 짙게 드리웠던 이곳은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해양 물류의 전초기지이자 해안선과 마천루가 경이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제적 미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부산은 개방과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나와 같은 실향민 가족과 이주민, 외국인을 포용하는 소통과 공존의 도시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 FEALAC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출장 여정에 오른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하루가 넘는 하늘길을 건너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장

먼 두 대륙을 연결한다는 구상은 참으로 창의적이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창립된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협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했습니다. 선각자들의 지혜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FEALAC 출범 이후 두 지역에서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까지 더해져 태평양을 가로지른 하나의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이 살고 있는 FEALAC은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양 지역 간 교역 규모는 7,500억 달러, 투자 규모는 1,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시 지표만이 아닙니다. FEALAC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파나마 운하가 확장·개통됨에 따라 이곳 부산항의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어, 침체 위기에 있던 부산항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칠레 와인과 삼겹살, 후식으로 즐기는 필리핀 바나나, 뉴질랜드 키위,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북쪽 통로가 막혀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지만 한국은 '극동'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지평을 동북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넓혀 갔습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도전을 통해 발전과 번영의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아시아 및 중남미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ASEAN, 메콩 국가 및 인도 등과의 신남방 협력과 러시아·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 협력을 연계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과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투자,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교통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FEALAC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양한 국가군으로 구성되어 작은 유엔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고 다양한 미래를 열어 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사이버 사무국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이번 창설되는 FEALAC 기금을 든든한 기반으로 삼아 FEALAC의 질적 도약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는 2019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FEALAC 창설 20주년이며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꿈, 새로운 행동’을 슬로건으로 회원국 모두가 하나 되어 2019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교류와 협력은 상품·자본·서비스와 같은 물질 측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진실한 소통과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 세계 관광객 중에 FEALAC 동아시아 회원국과 라틴아메리카 회원국 간 상호 방문객 규모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온라인·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마음의 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ICT 등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의 장이 열리면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두 지역의 실질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질 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호혜적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FEALAC의 믿음직한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인류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빈곤,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질병, 국제 조직범죄와 같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지구촌 협력체로서 FEALAC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FEALAC 회원국 간 소통을 넓히기 위해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 사무국을 운영했습니다. FEALAC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 그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FEALAC 의장국으로서 숙원이었던 ‘FEALAC 신(新)행동계획’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FEALAC 기금' 설립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FEALAC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FEALAC 36개 회원국의 지도를 보면, 유달리 비어 있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말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자 긴밀한 국제적 공조로 풀어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FEALAC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결코 강대국 간의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총명하고, 계획을 잘하는 사람은 더욱 총명하며,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총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협력 비전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다양한 실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하면서 부산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 9



## 제54회 방송의 날 서면 축하

2017. 9.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송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제54회 방송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방송의 날은 1947년 9월 3일 대한민국이 고유 호출 부호를 할당받아 비로소 국적을 회복한 '방송의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1927년 이 땅에 처음 방송을 실어 나른 전파는 우리 역사의 아픔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전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사 머리맡에는 일제에 저항한 방송인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42년 서울에서 일제의 태평양전쟁 패전과 해외 독립운동 소식을 청취하고 알리던 방송인과 민간인 300여 명이 극심한 고초를 당한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은 진실과 정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대한민국 방송의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방송은 국민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1961년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 1981년 컬러TV 방송과 2001년 디지털TV 본방송 시작에 이어 지난 5월 31일에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술적 발전만이 아닙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방송 콘텐츠는 대한민국의 품격

과 매력을 지구촌 곳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높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제조업, 관광업, 서비스업까지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경제성장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취한 기술적 진보와 콘텐츠 역량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합니다. UHD 방송의 선명한 화질과 새로운 서비스로 평창에서 펼쳐지는 평화의 제전, 화합과 도전의 현장을 세계인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 여러분!

지금 국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만큼 방송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높습니다. 이제 방송인 스스로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간명합니다. 우리 방송이 법이 정의하는 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 화합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이를 통한 조화로운 국가 발전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의 내용들입니다. 「방송법」은 특히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중요하고도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철학은 확고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 외의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만을 위해 방송을 만들 자유, 공정한 방송을 향한 방송인들의 열망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콘텐츠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외주 제작 환경,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든 방송인들이 자신의 일에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17. 9. 3

우리 방송의 역사에는 일제강점기와 독재 시대를 온 힘으로 돌파해 왔던 방송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길은 방송의 참모습을 지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의 본질은 어떠한 힘에도 흔들림 없는 방송, 기울어짐이 없는 불편부당한 방송, 관행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불합리를 용납하지 않는 방송일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 국민의 편에서 함께 웃고 우는 친구 같은 방송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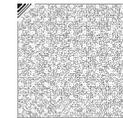
방송의 날을 축하드리며, 방송인 여러분의 건승과 우리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지난 두 차례에 걸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또다시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이번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분야의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단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러시아 방문]  
**한·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9. 6

먼저 이번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신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동방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는 예로부터 한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극동 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저는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두 정상은 극동 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



한·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2017. 9. 6)

역 협력을 전담하게 될 이 위원회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극동개발부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동 개발 협력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내년 중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과 극동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경제단체와 중소기업, 지방대학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인적 교류와 실질 협력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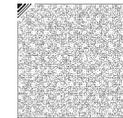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 저는 극동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협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극동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기업의 극동 진출 지원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투자자의 날’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가 한국, 러시아 양국은 물론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동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FTA 체결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기업이 극동 선도 개발 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자리 잡았으며, 수산 가공 공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 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되어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러시아에 인도한 세계 최초의 쇠빙LNG운반선은 그간 막연하게 여겼던 북극해 운항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 간 연계에서 보듯이 양국 협력의 선순환은 교통 인프라, 항만 개발, 농수산 등 전통 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 북극 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 지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지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



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께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 전폭적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 간 가능한 협력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극동 지역 개발이 양국의 번영은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이끌어 내 향후 본격적인 삼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협력 기반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제14회 병역 명문가 시상식 서면 축하

2017.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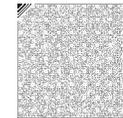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역 명문가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실천으로 보여 준 가족들의 영예이자 상식과 원칙을 사랑하는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올해 선정된 492개 가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923개 가문, 1만 9,555분이 3대를 이어 애국의 숭고함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렸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신 박용규 어르신은 병역 명문가 1대이자 국가유공자의 영광을 '6·25 한국전쟁 때 먼저 간 전우들'에게 돌렸습니다.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이 역사의 시련을 딛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정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병역 명문가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를 빛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애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로 삼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용납



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 행정을 실현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병역 명문가의 당당함과 자부심이야말로 국민통합의 구심점입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병역 명문가 선정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면 축사

2017. 9. 6

한중일 불교계 대표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국민화합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불교 지도자와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불교 지도자들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이제 스무 개의 나이테를 지닌 튼실한 우정의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이 나무의 넉넉한 그늘에서 우의를 다져온 한중일의 불자들이 오늘 한마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국민화합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우리 국민의 염원과 열정이 세계인들을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기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불교계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와 문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과 불교계의 뜻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고, 인류 공존과 번영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세계에 알리려는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동아시아에서 징검다리처럼 펼쳐지는 세계적 축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2년 후인 2020년에는 도쿄(東京)하계올림픽이, 2022년에는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중일 불교계의 하나된 정성이 일본과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까지 한결같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한중일 불교계 대표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慈悲)·광명(光明)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방문]

## 한·러 우호 증진을 위한 초청 오찬

2017. 9. 7

고려인 동포 여러분, 사할린 한인 동포 여러분, 재외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오늘의 만남을 고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께 그리움과 기쁨의 인사를 전합니다. 멀리 모스크바(Moskva)부터 우수리스크(Ussuriysk), 사할린(Sakhalin)에서도 많은 동포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러 양국의 우호협력에 기여하고 계신 미클루셴스키(Vladimir Miklushevskiy) 연해주 지사와 고르차코프(Gorchakov) 전 연해주의회 의장을 비롯한 러시아 인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자리가 양국 관계 미래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1946년 고려인 동포들이 부른 <아리랑>이 발굴·공개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해진 고려인의 <아리랑>은 기쁨 때도 슬픔 때도 우리 곁에 있었던 바로 그 <아리랑>이었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동포들의 강인함과 미래로 나아가는 건강한 낙천성이 <아리랑> 선율을 타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러시아 분들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을 통해 고려인 동포와 한국인의 삶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



서를 깊이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다져 왔습니다. 2014년 사증(VISA)면제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만 명 이상의 양국 국민이 서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후인 2020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우호협력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전을 품고 저는 어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공동번영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의 기치 아래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극동개발부 장관을 세웠듯이 우리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극동 개발 협력에 대한 국가 체제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에서 국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북극항로 개척, 에너지 개발, 조선 협력과 항만 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극동 지역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극동 지역은 또한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극동 개발은 남·북·러 삼각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남북협력의 진도가

안 나가면 한·러 협력도 지체되었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한·러 협력이 먼저이고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일은 양국의 번영은 물론이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큼니다. 저는 한·러 관계와 극동 지역 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계신 여러분의 활약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미클루셴스키 주지사님, 고르차코프 전 의장님, 앞으로도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극동 지역은 한·러 양국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통합과 성장 가능성을 실현할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재외국민 여러분!

1860년대 연해주 지역에 조선인 13가구가 최초 정착한 이래 동포 여러분께서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낯선 환경을 이겨 내며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용기와 저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땅이 있는 한 벼를 심었고, 어디에 가든 학교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을 가르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삶의 터전인 연해주는 해외 독립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연해주에서 독립군을 창설하고 대한국민의회를 수립했습니다. 식민지 아픔은 연해주를 거점으로 확산된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 건국과 해방의 희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연해주는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헤이그 특사 이상설·이위중 선생,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선생과 강상진·김경천·전홍섭 선생과 같은 수많은 애국지사의 혼이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올해



는 이상철 선생 서거 100주년인 동시에 헤이그 특사 파견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재형 선생의 손자이신 최 발렌틴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독립유공자 가족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지사과 그 후손께 가슴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새 정부는 애국지사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러시아의 정치·경제·학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러 관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약 16만 명에 달하는 동포 여러분께서는 특유의 근면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극동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부도 동포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겠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이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초청 연수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할린 강제 징용으로 고통받은 한인 1세분과 그 후손의 남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유골 봉환 사업, 2세·3세 모국 방문 사업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지켜 드리지 못한 무거운 빚을 이제라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대다수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두만강을 건너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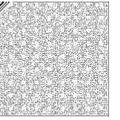
람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선대가 고향 땅을 떠나 강을 건너며 느꼈을 그 다양한 심정들을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질 것이며 상호 협력의 결실을 하나하나 맺어 갈 것입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소중한 가교 역할을 지속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과 동포 여러분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재외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함께 자리를 빛내 준 러시아 인사들께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방문]

##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 전체회의

2017. 9. 7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님,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아베(安倍晋三) 총리님,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대통령님, 나처럼 신임이어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각국 정부 대표단, 경제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최대 항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아주 정겹게 느껴집니다. 바다와 어울리는 풍광과 항구에서 올려다본 언덕 위의 집들은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부산 감천항에 가면 러시아 배가 수산물을 싣고 들어옵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어 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흘렘(Khleb)과 발효 요구르트 케피르(Kefir)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제정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Ekaterina II)는 극동시베리아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빛이 밝아오는 곳, 동쪽의 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극동은 여전히 잠재력이 가득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극동 지역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선조들이 개척했고 한국의 선조들이 찾아와 함께 살아온 터전입니다.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울창한 숲과 꿈틀거리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나의 이름 문재인의 인(寅)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 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 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Dostoevsky, Fyodor Mikhailovich), 톨스토이(Tolstoy, Lev Nikolayevich)와 함께 극동과 사할린(Sakhalin)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Chekhov, Anton)를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 문학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 근대 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Baikal)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명희는 연해주에서 살면서 이곳의 삶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의 문학비가 지금



극동연방대학 악사코브스카야 박물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래되고도 깊은 양국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 지역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간 공통의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더 큰 발전을 이끌어 낼 기반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나는 한국에서 볼쇼이(Bolshoi) 발레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곳 마린스키(Mariinskii) 극장에서 세계 최고의 러시아 발레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린스키 극동 극장을 통해 신동방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깊은 의지를 느낍니다.

나 또한 극동 지역을 포함한 북방 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되지 못했던 사업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해운 협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국제 해운 환경을 바꿔 내는 일입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루비노(Zarubino) 항의 개발과 맞물려 한국의 조선산업이 결합한다면 북극항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신(新) 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최근 6년간 발주된 대형 LNG선박 64%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쇄빙 기능을 갖춘 LNG운반선 15척을 수주하여 1척을 건조·인도 완료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쇄빙LNG운반선입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님은 이 쇄빙LNG운반선의 명명식에 참석해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해운이 갈 길을 밝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배는 이미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의 충남 보령항까지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남방 항로에 비해 운송 거리, 운송 시간, 운송 비용이 무려 3분의 1이나 절감되었습니다. 이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큰 변화를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은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유조선도 러시아에서 수주했습니다. 국제 해운을 친환경 해운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쇄빙LNG운반선과 LNG 연료 유조선은 세계가 러시아의 LNG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러시아 가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조선기업들은 러시아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즈베즈다(Zvezda)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하여 한국도 극동 개발 협력을 위한 국가 체제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



력하여 극동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과 나는 양국 지방협력포럼도 내년부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양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과 인적교류도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은 더욱 견고하고 영속적인 북방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Eurasian Economic Union)과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 Greater Tumen Initiative) 같은 다자간 협력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극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유라시아 지역과 동북아·아태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극동 지역에는 석유·천연가스·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 수요도 매우 큼니다.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러시아 내 기업 활동 여건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 협력을 이뤄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9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 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한국인의 역사와도 함께합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종 황제의 특사 이준이 이 열차를 탔습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이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우리 철도와 TSR(Trans-Siberian

Railway :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력 협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에 러시아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 그리드(Super Grid)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단 설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농업기업이 연해주에 진출했고, 러시아 농업에 기술 지원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물류 가공 복합 단지 조성으로 이뤄질 수산 분야 협력은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9개의 다리는 미래를 향한 탄탄대료가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한국기업은 그동안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동차·가전 등 일부 분야는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오 자동차는 7년 전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 공장 투자의 결실로 러시아 부품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한국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은 극동 지역의 대형 산업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기업의 금융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묵묵히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든다면 양국 기업 간에 깊은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기업들은 농업·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야 사업, 폐기물과 관련한 친환경 사업, 호텔·리조트 개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이 극동 지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에서 이번 동방경제포럼의 주제처럼 동방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극동 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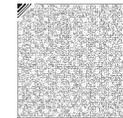
며칠 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국제적 제재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동참해 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내년 2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전통적 동계 스포츠 강국이고 직전 소치동계올림픽을 주최한 러시아 국민이 한국을 더 많이 찾아주시길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평소 스키와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에 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연이어 주최한 주최국으로서 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 관련 대국민 SNS 메시지

2017. 9.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 능력을 최대한 높여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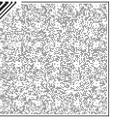
국민 여러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 배치입니다.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



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64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2017. 9. 1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인천시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64회를 맞은 해양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경찰청 재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만큼 해양경찰 여러분의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 이후 바다의 안전과 주권 수호, 조난 구조와 오염 방제 임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996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와 함께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두 배 이상 넓어진 우리 바다를 지켜 왔습니다. 1953년 겨우 6척의 소형 경비정과 658명의 대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5,000톤급 대형 함정을 포함한 314척의 함정과 1만 2,000여 명의 인력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비 함정과 구조대 등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바다를 지키다 순직하신 고(故) 오진석 경감, 박경조 경위, 이청호 경사를 비롯한 해양경찰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해양경찰 여러분!

그러나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 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을 두고 생존한 학생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 나왔을 때 해양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이후 해양경찰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구조 조직을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나기 위해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합니다.

첫째,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사안일주의, 해상 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을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둘째,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합니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하여 근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해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국가기관과 협업·공조 체계를 갖추어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을 완벽하게 구조해 내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우뚝 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많이 험겁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을 누르고, 새 출발하는 해양경찰의 앞날을 축하하는 이유도 이런 믿음과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 우리 해양경찰의 앞날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안전을 위한 혁신 노력과 함께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입니다. 바다 영토와 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독도·이어도 등 외곽 도서 경비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양 안보에 있어서도 해군 등 외교·안보기관과 협업·공조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안보 체계의 한 축으로서 해경의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을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어민의 민생을 위협하고, 소중한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연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양 안전 교육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 오염 방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 오염 사고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해양 오염 방제에는 해양경찰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 기관이라는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관받은 수사·정보 기능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어민들이 경찰청과 해양경찰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찰청과 해양경찰 사이에 업무 관할을 분명히 하면서 공조 체계를 잘 갖춰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해양경찰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서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바다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국운이 융성하고 강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수주 잔량 2위, 선박 보유 규모 5위, 양식 수산물 생산량 7위 등 세계 12위 권 해양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관리하고 지키는 해양경찰 여러분의 어깨에 해양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재출범을 계기로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발전해 가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주십시오. 정부도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해안 유류 오염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2017. 9.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과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태안을 다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칭정한 모습으로 되살아난 이곳 태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주민 여러분께서 공연한 ‘태안 만대마을 강강술래’는 참 기습 몽클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유류 피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창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강강술래를 통해 함께 손을 잡고 행복마을로 거듭났습니다. 만대마을은 작년 ‘전국 행복한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마을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정신으로 시련을 극복한 마을 주민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2007년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곳 태안에 왔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사상 최악의 유류 오염 사고로 검은 재앙이 덮친 곳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은 건잡을 수 없게 번졌고 부근 바닷가는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해양 전문가들은 원상회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



서해안 유류 오염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2017. 9. 15)

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응집력과 강인함을 보여 주었던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갈과 바위를 하나하나 닦아 냈습니다. 1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무려 123만 명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은 얼마나 시렸습니까? 민관군을 합해 연인원 213만 명이 온 힘을 다해 방제에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방제 작업을 위해 만든 작업로가 솔향기 가득한 생태 등산로로 탈바꿈했고, 충남의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충청도민의 힘으로 되살아난 서해에서 해양 안전과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되새깁니다. 국민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깨끗한 바다, 맑은 공기, 풍요로운 땅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안전·재난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경보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넘는 해양 재난과 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갖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연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전 해역의 통합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다가 주는 혜택을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우리 후손이 이 아름다운 해안과 천혜의 갯벌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해 연안 하구 관리와 생태계 보전 복원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두의 힘으로 제 모습을 되찾은 서해가 국민에게는 쉼터가 되고, 지역경제에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오늘 하늘이 맑고 높습니다. 이렇게 맑고 높은 하늘이 어느새 특별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충남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한 달간 보령 화력발전소1·2호기와 서천화력발전소1·2호기 등 충남의 네 기를 포함한 전국 여덟 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간 동안 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졌습니다. 앞으



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충남 하늘이 맑아야 서울 하늘도 맑습니다.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 관리 권역 지정을 충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38%, 충남에선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충남과 대한민국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해를 되살린 국민입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진 맑은 하늘 아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도 민생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2015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지난 7월 2일 보령댐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8.3%까지 내려갔습니다.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까지 우려되었습니다.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가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선제적·종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지난 8월 24일 가뭄에 취약한 충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이 부족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비상 수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물 수요 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위기 때마다 국민이 보여 준

놀라운 저력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 왔듯이 국민과 함께 이겨 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적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2007년 서해 기름 유출 사고, 2016년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사태를 극복한 힘은 모두 국민이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에는 국민의 숨결과 긍지가 깃들여 있습니다.

이곳 태안에는 국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충남도민, 태안군민 여러분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충남의 어린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세대가 자유롭게 꿈을 펼치는 나라, 깨끗한 바다, 맑은 공기, 풍요로운 땅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돌 SNS 메시지

2017. 9. 17

오늘은 윤이상 탄생 100돌이 되는 날입니다.

탄생 100돌에 맞춰 통영시가 도천테마기념관의 이름을 윤이상기념관으로 바꿨습니다. 윤이상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통영시민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통영은 윤이상의 음악을 낳고 키운 곳입니다.

통영의 잔잔한 바다, 물고기로 넘쳐 나는 어시장, 밭일하는 어머니의 노랫소리, 밤바다를 타고 넘는 어부들의 뱃노래까지, 어린 윤이상이 보고 느꼈던 통영의 모든 것이 음악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 투쟁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던 청년 윤이상을 구원했던 것도 음악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남쪽의 작고 아름다운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윤이상의 음악은 독일 베를린에 이르러 현대음악의 가장 중요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음악을 융화한 윤이상은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중 유일한 동양인이기도 합니다. 1988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 악보 위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였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이상은 베를린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그의 음악은 낯설기만 합니다.

윤이상 탄생 100돌을 맞는 오늘 국민과 함께 윤이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미국 방문]  
뉴욕 동포 간담회

2017. 9. 18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와서 첫 일정으로 이렇게 동포 여러분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든든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번 순방도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해외 동포 수가 740만 명에 달합니다. 대단하죠? 남북한 총 인구가 7,500만 명 조금 넘는데 남북한에 거주하는 한인의 10분의 1 정도가 해외에 진출한 셈입니다. 중국·이스라엘·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거주하는 나라 수가 무려 180여 개국에 달하는데 어딜 가나 한인 동포들은 인정받습니다. 여기 세계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지라는 뉴욕에서도 우리 동포들 활약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세계를 무대 삼아 활약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동포 여러분은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데 앞장섰습니다. 선각자들과 재미동포사회가 하나가 되어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를 펼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919년 봄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의 한 극장에서 모였던 재미동포의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의 결의는 지난겨울 맨해튼과 뉴저지 거리 곳곳에서 촛불집회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촛불집회뿐만 아니



뉴욕 동포 간담회(2017. 9. 18)

라 투표도 많이 하셨죠? 언제, 어디에 있는지 조국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주신 동포 여러분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지난 2011년 '국민대합창' 기억하십니까? 서울과 평창, 그리고 여기 뉴욕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노래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우리 동포 200명이 참여하여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을 많은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



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대한 막이 오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언제나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화합해서 냉전 구도 해체에 크게 기여를 했고, 2002년 월드컵에서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의 힘과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지난겨울 혹독한 정치적 격변을 겪은 우리에게 치유의 올림픽이 되고 나아가 평화와 통합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금화가 3만 원짜리인데요, 그 금화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무와 새끼줄을 엮어서 만든 한국형 전통 스키인 고로쇠 스키입니다. 그리고 눈신발 설피(雪皮)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로쇠나무를 깎고 밀랍을 발라 눈에 잘 미끄러지도록 만든 고로쇠 스키는 예로부터 눈이 많은 강원도 산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조들의 생활 도구였습니다. 원시 형태의 스키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닦인 스키장이 아닌 강원도의 산악 지형에서는 현대 스키보다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알맞다고 합니다. 선조들이 이 원시적인 스키를 타고 곰과 호랑이, 그리고 멧돼지를 쫓아 잡았다는 기록이 조선 시대 성호 이익(李穡)이 쓴 《성호사설(星湖僿說)》이라는 책에 남아 있는데,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우리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개최할 만한 나라 맞죠? 또 이 정도면 제가 평창 명예 홍보대사라고 할 만합니까? 여러분도 이제 홍보위원이 되셨죠? 이제 다 함께 홍보위원이 되셨으니 저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해 주시겠습니까?

미국과 전 세계에 강원도 평창의 겨울, 그 정겨움과 아름다움, 역동성을 알려 주십시오. 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평창동계올림픽도 멋지게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평창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또 동포사회는 더욱 활력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고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와 1세대 부모님의 헌신, 그 결실과 보람인 차세대 리더 여러분!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Wall Street)와 IT산업 분야, 유수의 발레단과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오페라에서도 이제는 우리 동포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라는데 맞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지켜낼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Military Academy :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꿈을 실현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의 성공은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자 세계 각국의 동포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영감과 용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까 김민선 회장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도 함께 의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고 넓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제도와 모국 방문 연수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동포들이 정치적 역량을 더욱 키워 미국 주류 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정치 참여와 민



주주의 교육 등 동포사회의 다양한 노력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동포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은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초지능·초연결 시대에 국경을 넘어 하나로 이어질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걱정과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늘 고국에 대해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동포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길이지만,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안보,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같이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격이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기후변화, 포용적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와 같은 의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더욱 우리 동포 여러분의 자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역만리에서 동포 여러분이 온갖 역경을 이겨 내신 것처럼 조국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의 지혜와 저력도 함께 모아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2017. 9. 18

치매 환자와 가족 여러분, 치매 극복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얼마 전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고, 머지않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치매로 인해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치매 극복, 이제는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요양원에서 만난 분들은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이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착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치매가 걱정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오시면 검진부터 주야간 보호 서비스까지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돌봄시설과 전담 의료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성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치매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국가, 내 가족을 든든하게 받쳐 주는 이웃과 사회, 이것이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만들어 나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치매 극복의 날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영상 축사

2017. 9. 18

아·태 지역 각국에서 오신 육군참모총장과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하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국내외 안보 전문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는 이 지역의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현안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여 결국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난민, 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도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의 주제를 ‘비(非)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지상군의 공동 대응’으로 잡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가 더욱 내실 있는 군사협약체로 발전해 가길 기대하며,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2017. 9. 19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님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캠프(Frederick Kempe) 회장님,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님, 케이타(Keita) 대통령님, 카보레(Kabore) 대통령님, 라니아(Majesty Queen Rania) 왕비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관계자와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상을 수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님과는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과 시리아 난민 문제에 앞장선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실력만큼이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피아니스트 랑랑(郎朗)의 수상도 축하합니다. 랑랑의 음악은 진정 아름다운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먼저 이 상을 지난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께 바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



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국가들처럼 대한민국 현대사도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로 이어지는 고단한 역사를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국민의 성취가, 내가 오늘 우리 국민을 대표해 세계시민상을 받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6·25 한국전쟁이 휴전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절대 빈곤에 시달렸고, 민주주의는 요원한 꿈처럼 느껴졌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의 한국에 대해 외국의 어느 칼럼니스트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한국 국민의 역량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화의 깃발을 올린 한국 국민은 그 후 장기간 지속된 군사독재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졌고, 수많은 사람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 남쪽의 도시 광주에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전환점을 만든 시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숭고한 실천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용기와 결단은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절제력을 잃지 않는 성숙함으로 빛났습니다. 많은 시민이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줄을 서서 헌혈을 했고, 주먹밥을 만들어 떠나없이 나누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이 시민항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국민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광주시민의 용기와 결단을 민주주의 역사에 확고히 새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또 한 번 도약했습니다. 국민 마음 속에 뿌리내린 민주주의가 광장을 열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한국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 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를 되찾았고, 그 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소수의 저항에서 다수의 참여로 도약한 한국 민주주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독재의 벽을 무너뜨린 우리 국민은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갔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바로 광장의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입니다. 국민은 독재정권이 빼앗았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되찾았고,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보여 줬습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 시민에게 보여 주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된 나에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여러 달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의 시



민 행동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은 완벽하게 평화롭고 문화적인 축제 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촛불시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민주화운동을 했던 학생이었고, 노동·인권 변호사였으며, 촛불혁명에 함께했던 나는 촛불정신을 계승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국민과 악수를 나눕니다.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고 반가워할 때 행복합니다. 동시에 마음이 아파 오기도 합니다. 국민이 내 손을 꼭 잡아 줄 때 전해 오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라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는 다시 다짐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한민국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내가 받는 상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라는 세계인의 격려와 응원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역사를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평화의 역사를 말씀드릴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이 걸어갈 경제민주주의와 평화

의 길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보내 주신 환대와 우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재단의 발전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

##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2017. 9. 20

덴 퀘일(Dan Quayle) 회장님, 스티븐 슈워츠먼(Stephen Schwarzman) 회장님, 데이빗 루빈스타인(David Rubenstein)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금융·경제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 이곳 뉴욕에서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금융·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한국경제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금융·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누구나 투자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요인은 없는지,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인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나는 6·25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에 태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 13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대외 원조를 받아 전쟁의 폐허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꿈꾸기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 내가 태어날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는 경이롭습니다. 국내총생산은 1조 4,000억 달러로 천 배 넘게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 기적의 실체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한국경제의 체질은 더 건실해졌고, 금융·재정 여력은 더 확충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 감독 강화 등 경제의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겨 냈습니다. 당시 39억 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3,85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8%로 OECD 국가 중 가장 건전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68개의 세계 일등 상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비플러스(B+)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도 11단계 상승한 더블에이(AA)로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위기도 모범적으로 이겨 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온 숭고한 민주주의를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다시 지켜 냈고 한층 성숙시켰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부름 위에 출범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욱 강해지는 국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금융·경제인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도 위기는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고, 국민의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불평등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정상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IMF, OECD 등은 경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ILO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 다른 ‘임금 주도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국민의 저력을 믿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은 다시 ‘사람’입니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경제를 통해 성장을 이끌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경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추진할 사람중심 경제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재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주거·교육·의료·금융 등 가계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혁신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수요를 이끄는 정책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내각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신산업 분야 규제 개편, 벤처자본과 창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에는 인공지능을 입혀 부가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세 번째 축은 공정경제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제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합리적인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보장하여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포용적 성장, 나아가 포용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금융·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수출주도의 대외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



고, 최대 투자처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호 간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과 비교하여 2016년까지 세계 무역은 12%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은 오히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8.5%에서 10.6%로 크게 늘어났고, 미국산 소고기는 한국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도 수입이 3배 이상 늘어나 수입차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한국도 자동차와 정보통신 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전히 상품교역에선 한국이 흑자지만, 서비스 교역에선 미국이 많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품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서비스산업에 강점이 있는 미국의 상호 호혜적 진출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이 중요시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앨라바마(Alabama)와 조지아(Georgia) 공장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3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Texas)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3,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많은 한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교역 확대, 시장 접근성 향상, 투자·일자리 창출 등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의 요구에 의해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30% 이상 감소했다는 추세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차분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75% 경제영토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FTA 유지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한국시장 진출의 필요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금융·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경제·금융계도 우려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히 일치된 목소리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북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난 60여 년간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온 한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은 일시적인 변동 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은 올해 꾸준히 상승하여 9월 20일 현재 연초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9월 3일의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2.3% 올랐습니다. 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연말까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



도 안정적입니다. 최근 IMF는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견고한 성장세를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7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실현 의지를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초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신북방경제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이 체제 안전과 발전의 길이 아니라 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발전이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의 틀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 지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금융·경제인 여러분!

지난겨울 대한민국은 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국이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북핵 위기도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다시 이겨 내고 도약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입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2017. 9. 20

여러분, 반갑습니다.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의 가을이 참 좋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청아한 가을밤에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쁩니다. 내 본업이 대통령입니다만, 오늘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명함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밤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보신 평창의 겨울 풍경이 어떠셨습니까?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잘 섞어 놓은 젊은이들의 춤과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은 생각이면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42일 남았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142일 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2월 대한민국 평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창은 그 이름부터 올림픽 개최지로 제격인 곳입니다. 평화롭다는 뜻의 ‘평(平)’과 번창한다는 뜻의 ‘창(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 평창, 정말 화합과 평화 증진을 추구하는 올림픽정신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나는 먼저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평창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2017. 9. 20)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북유럽의 설원과 중앙아시아의 푸른 초원이 함께 어우러진 곳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설악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유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 지역의 오랜 전통 축제 '강릉단오제'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노래하고 겨루고 춤추며 즐깁니다.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눈 덮인 평창에서 여러분의 2018년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준비 상황을 점검한 린드버그(Gunilla Lindberg) IOC 조정위원장은 “평창이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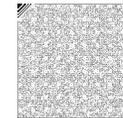
올림픽 안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테러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국제적 테러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치러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3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완벽한 안전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회 안전과 운영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모두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악마의 응원 열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은 또 어땠습니까? 무려 반년 동안 1,700만 명이 시위에 나섰지만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평화 축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응집력과 열정, 높고 성숙한 민주 의식, 나는 이런 국민이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창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올림픽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첨단 로봇이 성화를 봉송하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버스·승용차·SUV 같은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회장 안팎과 평창에서 강릉까지 운행될 것입니다.

평창으로 오십시오.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올림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구축된 5세대 이동통신 시범망을 체험하고,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이상과 초고화질과 대화면 방송 서비스를 맛보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편안한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이 30분 거리 안에 배치되어 있고, 여러분의 입국 통로가 될 인천국제공항과 평창, 수도 서울과 평창 모두 1시간대로 연결됩니다.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열리는 고품격 문화올림픽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한류 열풍도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만의 19세 청소년 짜오츠군의 이야기입니다. 열 살 때 평창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겨울을 경험한 짜오츠는 피겨에 푹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랭킹 13위의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짜오츠는 '평창이 삶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그동안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진행해 온 드림 프로그램의 결실입니다. 내전의 고통 속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해 세계 75개국 1,500여 명의 청소년이 평창의 눈밭에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장애 청소년 100여 명도 처음으로 눈을 보고 얼음을 만지며 겨울을 즐겼습니다. 나는 이 소중한 프로그램이 평창의 유산으로 남아 동계올림픽의 전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이 함께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북이 함께한 경험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국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와 태권도대회, 두 번에 걸쳐 북한이 참여했습니다. 태권도대회 참가는 불과 세 달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남북 단일팀 구성,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북한 응원단 참가 등 다양한 형태로 남북 스포츠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IOC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창과 뉴욕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11년 평창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째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해 5월 서울과 평창, 뉴욕을 연결한 국민대합창이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삼수(三修)만에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뉴욕의 열정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평창에 또 한 번의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창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창을 직접 방문해서 평화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을 완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잠시 후 있을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님의 공연도 맘껏 즐기  
시고, 오늘의 이 멋진 파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년 2월 9일 평창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 제9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 축전

2017. 9. 20

아주경제 창간 10주년 기념 제9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의 개최  
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경제정보 허브를 지향하는 아주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를  
혁신하라'를 올해 GGGF(Good Growth Global Forum)의 주제로 삼은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도전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좋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드는 일은 우리 경제의 화두이자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포럼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착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포럼의 성공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7. 9. 21

먼저 이 자리를 빌려 9월 19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멕시코 국민과 정부에 우리 국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cak) 제72차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분쟁의 사전 예방과 평화의 지속화를 추구하는 유엔의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총장의 재임 기간 동안 유엔이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2017. 9. 21)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입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고, 지난 70여 년간 인류 앞에 제기되는 도전에 쉽 없이 맞서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역할과 기여는 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초(超)국경적 현안이 날로 증가하고 이제 그 어떤 이슈도 한두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정신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동쪽 끝 한반도와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주목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지난겨울 대한민국



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 목격했던 촛불혁명의 풍경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 노래와 춤과 그림이 어우러진 거리 곳곳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손잡고 집회장을 찾는 부모들의 환한 표정,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지. 그 모든 장면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평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나 자신도 오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민주주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한 늦었지만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줬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힘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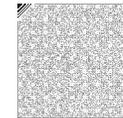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유엔과 늘 함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부터 6·25 한국전쟁, 전후 재건의 과정까지 유엔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

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 이르러서야 유엔 회원국이 되었지만 불과 한 세대 동안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회원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높여 왔습니다. 1993년을 시작으로 평화유지활동(PKO)에 꾸준히 참여해 왔고, 올해는 유엔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국으로서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난민 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작년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2000만 달러 공여국 클럽'에 합류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의 이행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여성 내각 30%를 달성하여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욱 기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 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의 소득 증가에 맞추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성장,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릅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시작한 이 담대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정한 정전 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나의 이 같은 신념이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북한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헌장의 의무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 원칙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유엔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전(前) 미국 대통령의 말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나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경제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 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림픽은 서기 394년을 마지막으로 1,500년이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힘은 평화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는 분쟁의 한복판 발칸 반도(Balkan Peninsula) 아테네(Athens)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의 감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후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東京), 2022년 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는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

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작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의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 세계인의 환한 얼굴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동행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절박한 호소를 담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평창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평창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ITU 텔레콤 월드 2017 영상 축사

2017. 9. 25

존경하는 홀린 짜오(Houlin Zhao)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ITU 텔레콤 월드 2017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4년 ITU 전권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ICT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U 텔레콤 월드 행사를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첨단 ICT 기술이 제품, 서비스와 융합하여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과 고용 형태 같은 사회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류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차 같은 분야는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줄 것입니다. 반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고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 디지털 변화와 글로벌 기회'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회는 살리고,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보화 시대에 IT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ITU의 ICT 발전지수 1위, 유엔의 전자정부지수 1위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설치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갈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과 신산업 투자가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세대 이동통신망을 내년 평창동계 올림픽 때 시범 서비스하고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디지털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 모든 국가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층 간, 지역 간,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기반 확충,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ITU 텔레콤 월드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부산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분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017. 9. 26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정신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오지 못했습니다. 뒷걸음질했습니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깨끗해야 할 권력, 더욱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청렴지수가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

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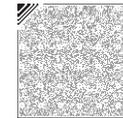
개별 부정·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 방지에서부터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뿌리 깊은 부패 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 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 부패는 사회 공정성을 파괴하여 국민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 구조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함이 바로 서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의 반부패를 넘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2017. 9. 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던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0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 도라산역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회담 성과를 설명하던 모습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남과 북의 그 벽찬 합의와 감격에서부터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4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 지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 나가자는 남북의 공동 선언이었습니다. 남북 관계 기본이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남북 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 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습니다. 서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2017. 9. 26)



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0·4남북정상선언은 참여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를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정상선언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10·4남북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10·4남북정상선언이 이행되어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10·4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 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

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역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남북 관계가 주춤거릴 때마다 누구보다 우리 국민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기대했던 만큼 국민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남북정상선언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단합하고 국민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 주시면,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남북정상선언은 여전히 살아 있는 합의로 숨 쉬게 될 것입니다.

10·4남북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합니다. 특히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 회담 복원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



야 합니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함께 10·4남북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

고뇌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4남북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에 의해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런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영상 인사

2017. 9. 26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문재인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해도 괜찮다”, 젊은이가 어르신들에게 “계서 주셔서 힘이 납니다”라며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해인 수녀님의 시 <달빛 기도>를 읽고 싶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동글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동글게!

국민 여러분,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

2017. 9. 27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740만 재외동포의 축제 ‘제11회 세계한인의 날’과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을 만나니 참  
 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각 지역 한인회를 대표해서 오신 한인회장단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인회는 전 세계 한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격려하며, 동포사회가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로운  
 훈포장을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비록 사는 곳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재외동포와 내국민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펼쳤  
 으며, 해방의 기쁨에 함께 웃고, 전쟁과 분단의 고통에 함께 울었습니다. 민주주  
 의와 경제발전이라는 험난한 현대사에서도 늘 함께였습니다. 조국의 민주주의  
 회복에도 동포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반구의 겨울 광장, 남반구의 여름 광  
 장에서 한데 모여 촛불을 들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75.3%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보여 주었습니다. 각국에서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거주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조국이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동포사회의 연대는 실의에 빠졌던 우리 국민에게 큰 격려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며 뜻을 모았습니다. 남북의 마음을 잇고자 소설을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인권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을 알렸습니다. 동포들께서는 조국의 아픔을 함께 하고 이역만리에서 우리가 함께 갈 길을 제시하고 실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재외동포의 성장으로, 재외동포의 성장이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이 역사가 저는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은 지금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이 보내 주신 참여와 열망이 맺은 결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자성과 자기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공정과 불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건강·안전 등 일상 속 변화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도 탄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범

죄, 자연재해가 늘고 있어 불안과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주 멕시코 지진으로 우리 국민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여 예방할 수 있는 사건·사고는 최대한 막아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초동 대응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관의 영사 서비스 혁신을 통해 동포 여러분의 불편함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후손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역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함께 모국 초청 연수와 장학제도, 청소년 교류도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로 정주 80주년을 맞는 고려인 동포 여러분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한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여 민족 정체성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동포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한민족 경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모국과의 끈끈한 연계가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큰 걱정이실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도 대한민국의 절박한 호소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기엔 어떤 난관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하는 중요한 기회



입니다.

동포 여러분 모두 1988년과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과 세계 곳곳에 울려 퍼졌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노랫말처럼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 진영의 화해와 냉전 구도 해체에 기여했습니다. 모두 함께 붉은 티셔츠를 입고 외친 ‘대한민국’의 함성은 2002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또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東京), 2022년 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평창에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194개국 740만 재외동포와 한인회장단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민족의 평화를 향한 절박함을 전 세계에 알려 주십시오. 하나 된 열정으로 전 세계가 평화올림픽, 평창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세계 곳곳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홍보해 주신다면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세계 속의 평창을 성공시켜 봅시다.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세계한인의 날과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조국에 머무시는 동안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44회 관광의 날 영상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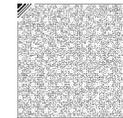
2017. 9. 27

제44회 관광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관광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관광은 중요한 일상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기도 합니다. 관광인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고인 1,7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제관광경쟁력도 19위로 2015년 대비 10단계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힘든 여건으로 인해 관광인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적 자산, 무엇보다 친절하고 인정 넘치는 우리 국민이 있기에 다시 본궤도로 들어서면 더 큰 도약을 이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부터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쉽표 있는 삶’을 드려서 관광을 통해 국민복지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 의료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



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전통문화와 한류를 융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관광업계의 고충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외국 관광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2월과 3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열립니다. 한국의 문화와 첨단 ICT가 결합된,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멋진 올림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이 평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2017. 9. 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위용을 한눈에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아주 든든하실 것입니다.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은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순국 장병들의 희생 위에서 있습니다. 특히 이곳 2함대 사령부는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우리 군의 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국 영령들의 기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의 정신을 보여 주신 그 영전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근간을 세운 창군 원로와 예비역, 국내외 참전용사와 주한 미군 여러분의 공헌에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공헌이 우리 군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묵묵히 자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2017. 9. 28)

신의 책임을 다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의 일상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우리의 후세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공동의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 내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하며 단합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평화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북핵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에게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을 말하고자 합니다. 국방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강도 높은 국방 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 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방 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군이 국방 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 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국방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 개혁을 성공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 몇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 능력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 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미연합 방위 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 방위 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

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입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합니다. 방위사업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입니다.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입니다.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군 각급 지휘부에 당부합니다.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만 봐도 내 자식처럼 애뜻한 정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딸입니다.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 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 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병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과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나와 정부는 여러분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겠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과 직업군인 확대, 병사 봉급 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



도록 군대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동료들을 더욱 아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을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온 우리의 호국 역사는 '안보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 또한 '구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인내와 실천 속에서 유지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 그 힘을 믿고 강한 안보, 확고한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 개혁을 통해 우리 군은 반드시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군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조국 수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조국을 위해 싸울 의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국민의 사랑과 성원이 없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국민과 하나가 되어 최상의 안보 태세를 갖추어 있도록 국군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의 의지와 능동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평화와 조국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69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사·순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2017. 9. 29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차마 안녕하신지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민족 최고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특히 연휴가 열흘이나 되어서 많은 국민이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가 모든 국민에게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찾아갈 고향이 없는 분도 계시고, 명절에도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가족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명절이면 가슴 한편이 더 뻥 뚫리고 허전하고 시리고 아프고, 오히려 명절이라서 더 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차 연평해전 전사 장병, 자주포 폭발 사고 순직 장병, 소방관·경찰관 순직자, 과로로 순직한 집배원과 방역 업무 종사자의 유가족을 모셨습니다. 사연은 다 다르지만 아마 동병상련(同病相憐)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빈 곳을 국가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그분들을 늘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자녀분들도 함께



오셨는데,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된다면 함께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마음만큼은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17. 10



##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위로전

2017. 10. 3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데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 가는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민들이 슬픔과 비통함을 하루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 2020 세계국제물류협회(FIATA) 세계총회 유치 지원 영상 축사

2017. 10.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2020 FIATA(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rwarding Agents Association : 국제운송조업협회) 세계총회의 개최지로 부산을 추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Korea'라고 부릅니다. Korea는 천 년 전 유라시아 대륙의 비단길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지나는 바닷길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 고려 왕국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대륙의 시작이자 대륙과 해양을 이어 주는 다리로서 사람과 문화, 상품이 오가는 소통의 요지였습니다.

그 정점에 부산이 있습니다. 141년 전 개항한 부산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6위의 국제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울산과 거제에서는 조선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30개 도시를 연결하는 김해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 다음 가는 제2관문 공항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고, 고속철도역은 전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 한글날 SNS 메시지

2017. 10. 9

그러나 대한민국과 부산은 ‘세계 물류의 중심’이라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는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도 부산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하고 몽골·중국·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슈퍼 그리드가 현실화되면 세계의 물류 지도를 바꾸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에 한국과 부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APEC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풍부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인 부산시민들이 FIATA 세계총회의 개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매력 넘치는 해양 도시 부산은 FIATA 세계총회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이 2020 FIATA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부산에서 각국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을 꼭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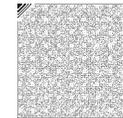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1년, 말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의 간절함을 헤아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한 지 91년, 말과 글을 빼앗긴 일제강점기에 ‘조선어연구회’의 선각자들이 한글과 우리의 얼을 함께 지켜 낸 날입니다.

우리말과 글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단지 세계 여러 문자 가운데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과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이뤄 냈고, 개성 있는 우리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9월 러시아에서 만난 고려인 동포들과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을 이어 주는 위대한 공동 유산입니다. 정부는 해외 동포들이 한글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한글은 배우



기 쉽고, 우리말을 들리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쉽습니다. 만백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누구나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것,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 통합니다.

유엔총회에 갔을 때 유엔 본부에 전시된 활자본 《월인천강지곡》을 보았습니다. 한글 창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섰던 금속활자 인쇄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오늘날 컴퓨터와 휴대폰의 문자 입력 체계의 우수성으로 또 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SNS 시대에서 한글의 위대함이 더욱 빛납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한글입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2017. 10. 11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도 이미 추경에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 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물결을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 사회로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 삶을 크게 바꿔 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Apple Inc.), 구글(Google), 아마존(Amazon.com, Inc.)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 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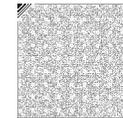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붙여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와 국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 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 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불평등 우려가 큼니다. 4차 산업혁명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이 변



## 제44회 LA 한인축제 서면 축하

2017. 10. 12

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추진 과제를 조기에 수립하기 바랍니다. 민간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 지식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각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하에 민간과 정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지능·정보화 물결을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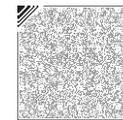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올해로 마흔네 번째를 맞는 LA 한인축제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고국 들녘의 풍성함을 담아 서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오신 LA 한인축제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74년 시작된 LA 한인축제는 동포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로(Olympic Boulevard)에서 시작된 동포들의 작은 행사가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유대감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류의 힘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있어 뿌듯합니다. 미국 현지인들과 함께 흥겨움을 나누는 잔치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홍보하는 의미도 각별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하나된 열정으로 동포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강원도 평창의 정겨움과 아름다움, 평화를 향한 우리 민



족의 간절한 열망을 LA 지역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 알려 주십시오. 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꽃피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축제가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다채로운 고국의 정취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44회 LA 한인축제'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동포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SNS 메시지

2017. 10. 1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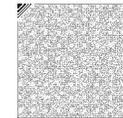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도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타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법질서  
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  
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  
니다.

##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2017. 10. 15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영화제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2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공식적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와서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부산영화제를 방문  
했다고 하니 여러모로 뜻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영화제는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  
리고 영화인 모두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국제영화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부산영화제처럼 성공을  
거둔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  
전했고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들어 줬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영  
향 탓에 부산영화제가 많이 위축됐다고 해서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많  
은 영화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외면하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김동호 이사장님  
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이 정말로 살신성인(殺身成仁) 자세로 영화제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금년 영화제 폐막을 끝으로 영화제에서 물러나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2017. 10. 15)

아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원을 최대한 하되 역시 간섭하지 않는다, 영화제 운영을 전적으로 영화인들의 자유와 독립에 맡겨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면하고 있는 영화인들께서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남은 기간이라도 다들 최대한 참여해서 부산영화제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이 끝이라는 살신성인 자세로 영화제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김동호 이사장님과 강수연 집행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겠다는 농담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영화인들의 마음이 모여서 부산영화제가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더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영화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국제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나 부산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영화제의 운영을 전적으로 영화인들의 자율과 독립에 맡겼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최대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정부가 이런저런 개입을 하면서 거꾸로 영화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2017. 10. 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관계자와 기업인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전시회가 각국의 산업 발전, 더 나아가 공동 안보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상호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올해 전시회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면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이 이룬 눈부신 발전 모습을 우리 국민과 세계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산 최첨단 전투기들의 당당한 위용이 지난 세월 대한민국이 땀으로 이룬 성취를 보여 줍니다.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음속 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의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은 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 규

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수출 품목과 수출 방식도 다변화·선진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험 비행을 하게 될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10년간 이미 23억 달러 이상 해외에 판매됐습니다. 고등훈련기의 성능과 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도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첨단 무기 체계의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연구·개발자들도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안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온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주역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내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역량 확보가 절실합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 무기 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 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과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교육 시스템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의지와 전략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2017. 10. 17)

첫째,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군·연구기관·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 무기 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상호 협력은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과제와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토의하고 협업하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상호 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부터 노력하면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둘째,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입니다. 무인정찰기와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무인 무기 체계가 등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출 것입니다.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하여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기업도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지난날 정부의 국방 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방위산업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업도 이제는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국과 방산협력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군만을 공급 대상으로 하는 무기 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 국가와 첨단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 체계를 세계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기 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 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협력 국가 국방력 강화와 함께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전시회가 각국의 평화와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우리의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멋진 에어쇼도 관람하고 첨단 국산 무기들도 직접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시회 개막을 축하하며 세계로 힘차게 뻗어 가는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뜻깊고 보람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2017. 10. 18

일자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적경제 기업인과 청년 대표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준 헤이그라운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빅이슈 코리아가 여기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대표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 홍대입구역에서 《빅이슈》 잡지 판매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으면 그분들의 자립을 도울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경제를 실천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



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일이 일자리위원회 신설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11조 원의 추경을 통해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일자리정책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고,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안전·치안·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경찰관·소방관·부서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요양·환경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중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붐 세대의 대규모 노

동시장 진입 등으로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정부는 힘을 실어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겠습니다.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하여 더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창출이 용이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신산업은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이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입니다. EU 국가의 사회적경제부문 고용 비중은 평균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중이 2%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가격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과 일 양립,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과 공정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먼저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이 움직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과 신산업 진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요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KT·CJ·한화·포스코·두산도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에 동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은 정말 엮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최고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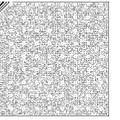
기업인 여러분,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 주십시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헤이그라운드에 들어오면서 마주친 한 줄의 글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Change making journey with you. ‘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에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중심 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주인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2017. 10. 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 온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 72년간 우리 경찰은 전시에는 국가의 방패가 되고, 평시에는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오히려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분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가 넘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

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세계 관광객들도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사 역량과 치안 시스템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사이버 수사, 과학수사 기법과 112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한국형 치안 시스템이 전 세계 78개국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치안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 경찰의 노력을 치하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새로운 출발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국민 기대가 큼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 복무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경찰이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 대응에 과도한 경찰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녁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 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찰을 믿습니다.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 낸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입증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경찰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인권상(Human Rights Award of the Friedrich-Ebert-Stiftung)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상이 촛불시민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 행동이었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 여러분의 노력도 컸습니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촛불시민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입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2017. 10. 20

국민 여러분,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17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고국을 찾아오신 동포 선수단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에 펼쳐지는 아흔여덟 번째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7일간 충북에 울려 퍼질 응원 의 함성과 가을 햇살에 빛날 선수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먼저 충청도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이곳 충북에서는 '장애인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보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먼저 열린 것은 체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충청도민의 관심과 애정은 뜨거웠고, 자원봉사자들은 진심을 다해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중은 선수들과 한마음이 되어 웃고 울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였고 모두가 승리한 체육의 향연이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도민 여러분, 충주시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감동을 선사해 준 장애인선수단과 임원



여러분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보여 주신 충청북도 도민의 우애정신과 품격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20년 일제강점기에 시작한 전국체육대회는 근현대의 격동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의 큰 줄기입니다. 저는 한 장애인 운동선수의 이야기에서 체육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었던 이들에게 체육은 사회에 나오는 용기를 주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했던 한 선수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체육의 역사는 도전과 용기, 화합과 연대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국민은 모든 힘을 다해 분투를 펼치는 우리 선수들을 통해 식민지 어둠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에 기운을 북돋운 곳 역시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운동장이었습니다.

세기가 바뀐 2002년 월드컵 때 운동장은 광장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넘어 광장과 거리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 구호는 도전과 용기, 화합과 연대라는 체육정신과 함께 근현대의 역경을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의 함성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치른 나라가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국토의 중심부 충청북도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갈 환호와 열정, 선수들이 흘린 땀이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성공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수와 체육 관계자 여러분!

정부는 2년 후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100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비상할 한국 체육 100년의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이루어진 체육 단체 통

합은 그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상생의 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유소년과 청소년, 노인, 소외 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전 연령대와 전 계층이 모두 마음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더 많은 선수들이 현역 은퇴 이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생활체육 기반을 넓혀 재능을 갖춘 운동선수를 발굴·양성하고, 선수들은 은퇴 후 체육 지도자가 되는 선순환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역 선수들이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이곳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체육인들의 염원을 담은 진천선수촌이 개촌식을 가졌습니다. 장구한 전국체육대회 역사와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맞는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선수촌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는 일은 여기 계신 모든 선수들의 꿈일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선수 선발 공정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육상·수영·체조와 같은 기초 종목은 단기 성과에 급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기초 종목은 생활체육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 맞춰 육성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선수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7개 시·도에서 펼쳐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체육대회에 진출한 선수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땀 흘려 얻은 것이 경기력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했으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왔습니다. 여러



분 안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소통과 연대의 힘이 있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당당히 뛰어 주십시오. 승패를 넘어 아름다운 경쟁을 보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가슴에 새긴 체육 꿈나무들이 여러분을 이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전국체육대회를 밝힐 성화가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선수 여러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주십시오. 출발선에서 숨을 힘껏 들이쉬고 꿈을 향해 도약하십시오. 선수와 관객, 국민 모두가 전국체육대회의 주인공입니다.

큰 체육 행사를 연이어 훌륭하게 준비하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과 충주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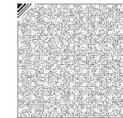
##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

2017. 10. 22

이북도민 여러분, 탈북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850만 이북도민과 3만 탈북주민이 함께하는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 역시 실향민의 아들, 이북도민 2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북도민 어르신들을 뵈니, 앞담배를 종이에 말아 피우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선친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선친은 함경남도 홍남 출신입니다. 전쟁통에 남으로 피난하여 홍남 부두에서 거제도, 부산으로 뿌리 잃은 삶을 사시다가 끝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이제는 고향에 가 볼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에 차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북 실향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기대를 하고 똑같은 실망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45년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올해 아흔이신 어머니의 동네는 홍남 서쪽을 흐르는 성천강 바로 너머 함주군입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아버지, 어머니의 동네에서 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세월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북도민 여러분!

실향민 1세대 어르신들은 분단과 전쟁, 이산의 고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일구고, 일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길었던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밟혔던 분들이 바로 이북도민과 탈북주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방문을 허용하자고 북에 제안했습니다. 만약 북이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겠다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중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인륜과 천륜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부는 한순간도 이북도민과 이산가족의 염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운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만나기까지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좋은 세월 올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북도민 여러분, 탈북주민 여러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법으로 반드시 남북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습니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 가겠습니다. 안보에는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같은 안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강한 안보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유럽과 동남아 국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욱 굳건한 협력 관계를 다져 가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발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이 깨닫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흔들림 없는

강한 안보를 기반으로 단계적이며 포괄적인 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북도민 여러분, 탈북주민 여러분!

실향민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 이북도민 2세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북도민도, 탈북주민도, 기업인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념적 구별과 대립은 우리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며 역동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쟁 속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러했듯이 오늘 이곳에 계신 이북도민 어르신, 탈북주민 모두를 대한민국의 품으로 이끈 것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북이 갖고 있지 못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밥이고, 삶이고, 평화입니다. 서러움도 미움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고향을 찾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2·3세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북도민의 자라이며 긍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보고 느끼며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긴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실향의 슬픔을 만남의 희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북도민, 탈북주민 여러분!

정부는 실향민들이 두고 온 고향의 향토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지역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 무형문화재 발굴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 이북5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외 거주 이북도민들의 고국 방문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의 길을 선택한 탈북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업체 연수와 맞춤형 교육과 같은 실질적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탈북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이북도민·탈북주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문은 이 나라 주권자인 여러분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의 날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다 잊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만남과 화해, 평화통일의 길을 이북도민·탈북주민 여러분과 함께 건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마무리 SNS 메시지

2017. 10. 2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 주신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 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 주셨



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전 비리를 척결하고 원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층지대의 활동 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2017. 10. 26

시·도지사님들 반갑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방에서 만나는 첫 번째 간담회입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간담회를 할 때 “다음에는 지방에서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이곳 여수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서 자치·분권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2017. 10. 26)

그런 뜻에서 오늘 자치·분권 로드맵을 안건으로 준비를 했는데, 시·도지사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해서 더욱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사무·조직·재정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지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님들의 숙원인 지방의 안정적 재정 확충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



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지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안전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민안전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사건·사고·재난·질병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저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 외에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자치와 분권을 확대·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보람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촛불집회 1주년 SNS 메시지

2017. 10. 28

오늘, 촛불집회 1년을 기억하며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촛불은 위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정치 변화를 시민이 주도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새로웠습니다.

뜻은 단호했지만 평화적이었습니다.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로 편 가르지 않았습니

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통합된 힘이었습니다.

촛불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미래입니다.

끈질기고 지치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촛불의 열망과 기대,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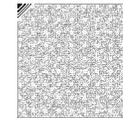
2017. 10. 31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자문위원 여러분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오신 자문위원 한 분 한 분 당당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740만 해외 동포를 대표해서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해외 자문위원들께 모두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전체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시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동해 바다도 보고, 설악산 단풍 구경도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도 둘러보고, 좋으시죠?

이곳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이 자문위원 여러분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제 100일 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 경기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때도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가족, 이웃과 손잡고 강원도로 달려오시겠습니까?



지금 강원도민들과 최문순 도지사가 온 힘을 다해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도 평창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평화 제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평화는 올림픽의 근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은 확고한 평화 의지와 평화를 이뤄 낼 능력이 있습니다.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올림픽을 통해 세계인과 만나고 화합한다면 강원도 평창은 이름 그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창이 움트는 화합의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방금 우리는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의 보고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국내 17개 시·도 지역회의와 228개 시·군·구협의회, 해외 43개 지역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자문위원 위촉 국가도 122개국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무엇보다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활동 방향이 국민의 뜻과 시대 요청에 부응하고 있어서 국민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저력과 18기 자문위원 모두의 지혜가 모인 결과입니다. 서로에게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년과 달리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방향을 상향식으로 결

정했습니다.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도 국정운영계획을 주권자인 국민 참여 속에 만들었습니다. '광화문1번가' 운영을 통해 총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 굳건하게 공조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회담 제의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국민이 주신 의견을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문위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삶과 밀착된 정책 건의를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삶으로부터 길어 올린 평화통일 의지와 정책만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반년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민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드리면 얼마든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서가 모아지고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은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정부 의지와 만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또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의 길은 국민통합의 길과 하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들께서 지역과 세대, 계층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때 국민통합과 함께 평화통일의 힘



도 모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이 전하는 국민 의견을 무겁게 듣고 여러분의 판단과 제안을 존중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평화통일 전도사이듯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은 평화통일 외교관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품격과 국익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세계 곳곳에서 당당하게 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평화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우리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내는 자문회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루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 부록

#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에 따른 찾아보기

# 문재인정부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5.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0.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15.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8.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1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16.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19.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7.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12.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17.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20.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8.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13.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9.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4.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주제	행사	권	쪽수	
국정전반				
국정전반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상	49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상	107	
	국정과제 보고대회	상	226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상	257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상	268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하	12	
	2018 신년 산행 SNS 메시지	하	168	
	2018 무술년 신년 인사회	하	170	
	2018 신년 기자회견	하	191	
	장차관 워크숍	하	234	
	국민께 드리는 2018 무술년 신년 영상 인사	하	280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하	283	
	취임 1주년 SNS 메시지	하	444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상	66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상	102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 영상 축하	상	168	
	제1회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영상 축하	상	236	
	제54회 방송의 날 서면 축하	상	290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상	339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상	368	
	촛불집회 1주년 SNS 메시지	상	437	
	제58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하	288	
	제99주년 3·1절 기념식	하	294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하	385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하	412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하	416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상	278
	국민개헌안 발표 SNS 메시지	하	371	

주제	행사	권	쪽수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상	87	
	제19회 미주한인체전 축전	상	123	
	(미국 방문) 워싱턴 동포 간담회	상	184	
	(독일 방문) 독일 동포 간담회	상	196	
	일본군 위안부 고(故) 김군자 할머니 추모 SNS 메시지	상	230	
	제3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서면 축사	상	250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	상	252	
	장준하 선생 서거 42주기 추모사	상	272	
	제14회 병역 명문가 시상식 서면 축사	상	299	
	(러시아 방문) 한·러 우호 증진을 위한 초청 오찬	상	303	
	(미국 방문) 뉴욕 동포 간담회	상	330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	상	377	
	전사·순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상	389	
	제44회 LA 한인축제 서면 축사	상	401	
	오사카 '사천왕사 왓소 2017' 서면 축사	하	30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하	39	
	(필리핀 방문) 필리핀 동포 간담회	하	64	
	(중국 방문) 중국 동포 간담회	하	105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1주년 기념 서면 축사	하	145	
	일본군 위안부 TF 조사 결과 관련 SNS 메시지	하	165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초청 오찬 간담회	하	180	
	제13회 미주 한인 날 서면 축사	하	201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하	342	
	(베트남 방문) 베트남 동포 만찬 간담회	하	349	
	(UAE 방문) UAE 동포 간담회	하	363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전문	하	373	
	아리랑무용단 고국 공연 서면 축사	하	382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	하	403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SNS 메시지	상	403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하	325

주제	행사	권	쪽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상	143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	상	231	
	제9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 축전	상	357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상	413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	하	92	
	2017 인터넷 기업인의 밤 영상 축사	하	97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하	15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하	217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하	221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	하	240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서면 축사	하	315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하	330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 영상 축사	상	170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하	147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식	하	203	
	규제혁신 토론회	하	223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2017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영상 축사	상	166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영상 축사	상	220	
	제6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 축사	상	224	
	ITU 텔레콤 월드 2017 영상 축사	상	366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상	397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상	40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하	160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하	162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	하	227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식 간담회	하	250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 수여식	하	274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하	79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및 벤처 창업 페스티벌	하	85

주제	행사	권	쪽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하	210
	민간 주도 혁신성장 현장 방문	하	41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장 방문	상	82
	치매국가책임제 SNS 메시지	상	84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	상	243
	건강보험정책 발표 SNS 메시지	상	248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상	335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인사 및 오찬 간담회	하	183
	제12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서면 축사	하	394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하	151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하	229
	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	하	390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현장 방문	상	59
	현장 소방대원들과의 대화	상	93
	웅산소방서 방문 후 SNS 메시지	상	98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상	137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상	19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상	240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간담회	상	266
	2017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영상 축사	상	282
	제64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상	319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상	418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마무리 SNS 메시지	상	431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하	25
	포항 지진 피해 관련 SNS 메시지	하	68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점검	하	74
	밀양 화재 현장 방문	하	232
	세월호 4주기 메시지	하	406

주제	행사	권	쪽수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	상	54
	2018 여성계 신년 인사회 영상 축사	하	187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서면 축사	하	317
	근로자의 날 SNS 메시지	하	436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상	152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돌 SNS 메시지	상	328
	(미국 방문)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상	351
	제44회 관광의 날 영상 축사	상	381
	한글날 SNS 메시지	상	395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상	405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상	423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식	상	427
	종교지도자 간담회	하	99
	KTX 경강선(서울~강릉) 시승 및 오찬 간담회	하	141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워크숍 격려 방문	하	143
	대한불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6주년 봉축 법요식 축전	하	209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및 오찬 간담회	하	214
	제132차 IOC총회 개최식	하	253
	제132차 IOC총회 개최식 서면 축사	하	259
	평창동계올림픽 IOC 위원 소개행사	하	262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감사 SNS 메시지	하	265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사전 리셉션	하	266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하	271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축전	하	273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은메달 축전	하	282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하	286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	하	301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하	309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서훈 수여식	하	313	

주제	행사	권	쪽수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하	319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하	340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축전	하	384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	하	408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제1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상	120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상	43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 70주년 축전	하	73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쇄빙LNG선박 건조 현장 방문	하	174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하	244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하	335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상	75
	서해안 유류 오염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상	323
	2018 농업인 신년 인사회 영상 축사	하	18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방부 순시	상	62
	합동참모본부 순시	상	6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	100
	한미연합사령부 순시	상	117
	6·25 한국전쟁 제67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상	148
	이순진 합참의장 이임식 SNS 메시지	상	280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	293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 관련 대국민 SNS 메시지	상	316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영상 축사	상	337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상	383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 간담회	하	101
	육군학생군사학교 제5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하	292
	육군3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하	303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식 및 임관식	하	304
	공군사관학교 제6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하	314

주제	행사	권	쪽수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8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하	324
	해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하	329
	(UAE 방문) 아크부대 방문	하	374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축전	하	396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상	370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상	439
	북미정상회담 환영 SNS 메시지	하	323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하	345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하	398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	하	400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하	423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	하	427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당선 축전	상	86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상	12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	상	130
	(미국 방문)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상	156
	(미국 방문) 한미 비즈니스 서밋	상	160
	(미국 방문)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상	172
	(미국 방문) CSIS 전문가 초청 만찬	상	175
	방미 귀국 인사	상	190
	(독일 방문) 독일 의료 지원단 접견	상	194
	(독일 방문) 한독 정상 공동 언론 발표	상	200
	(독일 방문) 쾰른버재단 초청 연설	상	203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기조연설	상	214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상	217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4세션	상	222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개회식	상	284
(러시아 방문) 한·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상	295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면 축사	상	301	
(러시아 방문) 제3차 동방경제포럼(EFF) 전체회의	상	308	

주제	행사	권	쪽수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미국 방문)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상	344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상	358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위로전	상	392
	2020 세계국제물류협회(FIATA) 세계총회 유치 지원 영상 축사	상	393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민방한 만찬	하	32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하	35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하	44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MOU 서명식 및 정상 공동 언론 발표	하	50
	(베트남 방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하	54
	(필리핀 방문)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 연설	하	56
	(필리핀 방문)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하	62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민방한 만찬	하	82
	제53회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서면 축사	하	90
	(중국 방문) 한중 비즈니스 포럼	하	109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하	116
	(중국 방문) 베이징(北京)대학 연설	하	119
	(중국 방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하	130
	(중국 방문) 한중 산업협력 총칭 포럼	하	132
	2017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간담회	하	136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	하	347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정상 공동 언론 발표	하	353
	(베트남 방문) 아세안 청년일자리 협약식 및 취업 박람회	하	356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하	358
	(UAE 방문) UAE 원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	하	367
	(UAE 방문) 한·UAE 비즈니스 포럼	하	377
	제7차 한일중 정상 공동 언론 발표	하	438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하	441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발행      대통령비서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인쇄·제본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